

만남

09
2020
통권 560호
10



대한예장
로

영락교회

영락 지금



‘월요 만나’로 믿음의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월요일마다 새로운 말씀의 만남이 쏟아집니다. 지난 7월 6일(월)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179일간 계속되는 ‘한 친구 운동’의 하나로 우리 교회 18개 교구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이 ‘월요 만나’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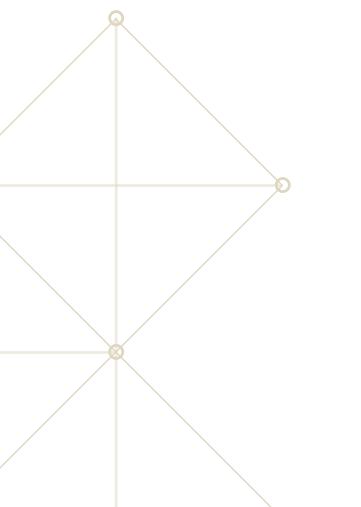
‘월요 만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교구별 만남이 축소되고 교구 목사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못가지게 된 최근 상황에서 각 교구별 맞춤 말씀으로 교구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회입니다. 보시는 방법은 우리교회 홈페이지(모바일도 가능)에 접속한 뒤 ‘영락교구 e-마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자신의 교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교구가 아닌 타 교구 목사님 말씀도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표지설명



코로나19로 인해 본당과 부속실에서 열린
제60회 산상기도회의 찬양의 시간.
이때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사진 원종석 기자

이달의 말씀	02	성숙한 예배로 풍성한 은혜를 김운성
영락칼럼	04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남정열
	07	종교개혁의 전통과 기독교 교육 이윤석
	10	은혜는 주일 성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일형
특집 _ 선교	12	비대면 시대 복음 전파의 새 패러다임 허원구
	14	국내 최고강사 신·구약 성경강해 김한수
	16	2020 영락교회 선교대회를 소개합니다 차동혁
특집 _ 소통	19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의 교회 간 소통 이상억
	22	버려야 할 것을 얼른 버립시다 이성두
	24	믿음의 면역체계 김지민
땅끝까지 이르러	26	총회 농촌선교센터 속소동·관리사동 봉헌 이두희
	28	코로나19 위기 속 다음 세대를 만나는 감사 김주신
	30	긴급구제금으로 초신자까지 감싸 김동익
	32	제3국에서 세례받은 아름다운 새 생명 하영인
다음 세대	34	교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 백성우
	36	웹으로 찬양과 말씀, 아이들은 기뻤습니다 김은하
	38	짜파구리 만들기·암호 해독 재미있었어요 박시연
	40	신앙의 성장통 속에 믿음의 정체성 찾아 윤영주
	42	왕은 누구인가 :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김가은
영락의 올타리	44	순교자 김창화 집사의 생애와 감사 이광정
	46	맡김의 훈련소 장정란
	48	믿는 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이해영
	50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간절히 나아가 김효진
	52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최범용
	54	오직 복음과 기도, 성령과 감사의 능력으로! 이영숙
	56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유진소
	57	임플란트 치아를 오래 사용하려면 김가영
야곱의 우물가	60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곳 신대군
	62	팔복재와 우거처에서 기도드립니다 이광소
	64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추석 명절 김창섭
	66	9월의 기도 조은미
문화광장	67	거리 너 있었는가 박신화
	70	수상한 소문 황광용
	71	동행 임규열
교회소식	72	본당서 열린 도심 속 산상기도회 외
	78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안내
	80	편집장 레터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성숙한 예배로 풍성한 은혜를

김운성 위임목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타나 있듯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달된 출애굽의 명분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였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요, 그 말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서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짐승 혹은 곡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

경에서 처음 언급된 제사는 개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제사의 중요한 요소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5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개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개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개인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사람을 중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오면 예배는 주로 개인 혹은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제사였습니다. 족장 시대의 제사는 사적 측면이 강했고,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부터 제사의 공적 차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에 따라 제사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백성들이 직접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물은 예배자가 가져왔지만, 제사에 있어서 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이 중요시되고, 제사하는 장소가 실로의 성소를 거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해지고, 짐승을 잡아 제단에 올리는 과정까지 제사 절차가 규정되어 공적이고 제의적 측면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족장 시대에 중요했던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다의 왕들이 많은 제물을 성전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했지만, 멸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참고,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는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배자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예배가 중요해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대체로 유대인 회당의 예배 순서를 따랐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된 순서였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배의 중요한 변화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공적 차원보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고 하셨을 때, 예배는 제사장이 집례하던 공적이며 제의적 차원을 벗어나 지극히 은밀한 개인 차원의 일이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인도자와 기도자, 찬양대, 설교자 등이 있고, 매우 잘 정렬된 순서에 따라 회중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회중 예배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것은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입니다.

회중 예배에서의 예배자는 전체 중 한 사람인 동시에 개인입니다. 전체 중 한 사람으로서 예배의 질서를 따르면서 예배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자의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회중과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예배당에서 동일한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한다 해도 받는 은혜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에 익숙할수록 예배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친구(179)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일에 드리는 새벽기도회 등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삶으로의 예배’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예배는 우리의 삶이자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깝고 자주 예배를 드리기에 오히려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자주 드리는 예배이기에 그 의미를 국한해서 주일예배만을 진정한 예배라 생각하고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Sunday christian)’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정규예배만 참석하면 모든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는 드리는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만 때로는 편의로, 때로는 무지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막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적 요소와 물리적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의식 주를 비롯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모든 물품 중에 해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의 것들을 활용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 만들어 두신 것을 누리는 것일 뿐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어느 정도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일 뿐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일 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가 만드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상처, 우리의 재정과 물질 및 생활 가운데 필요한 요소 등,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궁หลวง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풀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시며 이것이 인간의 외면과 더불어 깊고 깊은 내면에 이르기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누리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목자가 양을 모음같이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끄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이 귀한 예배를 현 사태로 인해 원활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자신의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 또한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온·오프라인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회가 찾



아온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쉬이 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일, 매주, 예배에 헌신자들을 통해 준비된 예배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와서 자리에 앉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가 가진 본연의 가치가 희석되고 나의 필요와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부지런(정확하게는 준비)해야 하며, 나의 시간과 환경에 대해 포기하고 용기를 내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 비교해 훨씬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험, 시간과 상황을 과거보다 더욱 면밀하게 준비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 자신을 준비해야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까다롭게 변하면서 나의 마음과 태도를 한층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훌로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각일 뿐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예배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중요

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사람이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 중심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지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 선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앞에 훌로 서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겪는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겸허하며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의지할 수 없는 시대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손만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날**



남정열 목사
종로·성북교구
IT미디어부, 홍보출판부

종교개혁의 전통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훈

무엇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잘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돋는 것입니다.

1. 잘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자신이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동지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칼빈은 무엇보다 자녀들이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을 만들어 훈련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교육의 길, 신앙교육의 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잘해주어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형편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잘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돋는 것입니다.

2.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저항하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도록 돋는 기독교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역사가 전해주는 몇 가지 전통을 함께 돌아보자 합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의 동력인 ‘저항(protestant) 정신’의 전통입니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보다 2백 년 전부터 중세 교회에 대항해 개혁을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잔인하게 제압당했지만, 2백 년에 걸친 그런 기간은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왈도파는 청빈과 금욕을 내세우며, 성직자와 귀족들이 장악한 제도 교회와 대조되는 실천적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열심히 기도 생활을 영위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14~16세기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등장한 ‘데보티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근대적 헌신)’ 운동은 평신도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제들의 ‘지적 무지’와 ‘영적 나태’에 반발해 평신도 수도원을 세워 영성 운동을 하고, 지성 운동을 위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가르쳤으며 고전을 읽도록 하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북유럽 지역에 고전어를 읽을 수 있



제네바 성경(Geneva Bible)은 킹 제임스 성경 보다 51년 이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결과였다(신약성경 1557년, 신구약 성경 1560). 당시 메리 여왕의 공포정치로 영국의 비국교도들은 스위스 제네바 독립시로 망명한 훈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는 지식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고전들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학 저술들이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사본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복음과 말씀의 재발견으로 인해 촉발된 각 성운동이며, 복음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개혁과 저항운동이었습니다.

3.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 삶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는 ‘말씀 중심’의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교훈을 흔히 다섯 개의 ‘오직(Sola)’으로 요약합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직 성경’은 단순히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최종적 판단

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 중세 교회는 ‘교황권’ 혹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대답했지만, 개혁자들은 삶과 신앙의 최종적 근거가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되거나 충돌을 일으키면 개혁자들은 당대 최고 권력인 교황권을 성경의 권위 앞에 굽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누구나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설교해서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모두가 성경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며,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4. 인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십시오.

셋째는 ‘믿음(신앙) 고백’의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은 신학적으로는 ‘이 신칭의(以信稱義)’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의미뿐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말할 때 상기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즉 믿음이란 어떤 외부의 강요나 위협으로 강제할 수 없는 각 개인의 고유한 신념입니다. 믿는다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기에 침해되어서도 안 되고,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이란 것을 중세

종교개혁의 전통은 교회를 향해 쉼 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교훈합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개혁은 늘 결단을 요구하며, 또한 무언가 하기를 결단했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의 ‘집단적 개념’에서 근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 16:15)라고 각 개인의 답을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을 하면서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대목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만큼이나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잘 드러냅니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런 주체적인 사고와 진정성 있는 내면적 고백의 중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5.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노르만 하퍼(Norman E. Harper)는 기독교교육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점점 더 변화되어 전인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변질하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 우리는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교회를 향해 쉼 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교훈합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개혁은 늘 결단을 요구하며, 또한 무언가 하기를 결단했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그저 질해주는 것, 괜찮아 보이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 철저히 삶을 돌아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



이윤석 목사
분당 갈보리교회 교육 담당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은혜는 주일 성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덕분에, 나의 믿음 생활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인도와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렸고 주일 성수는 당연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일 아침에 형과 동생들은 교회에 먼저 갔고 나는 어머니 앞에서 떼를 썼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볼멘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안 갈 거예요!”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

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나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교회에 가는 토요일 오후와 주일은 나에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성가대에 앉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주시는 선생님 앞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머니의 약점을 공략한 나름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제일 소중히 여기셨던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항이었음이 틀림없다.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다. 마당에 앉아서 떼쓰는 나에게 어머니께서는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내 온몸에 끼얹으셨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하였다.

“그려려면, 집을 나가거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랐는지 물을 뒤집어쓴 나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눈 깜짝 할 사이에 젖은 옷을 새로 갈아입고, 어머니 앞에서 울먹거리며 목멘 채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교회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날 이후로는 절대 농담이라도 부모님께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성장하면서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지에 대한 회의와 거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꼭 지켰다.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던 부모님 덕분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주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신앙인들에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극히 일상적인 일이 바이러스로 인해 막힐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담임목사님을 통해 ‘기도대각

성운동’으로 준비하게 하셨으며, 이어진 ‘119대 작전’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해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한 친구 운동’을 통해 막힌 전도의 문을 여는데 온 성도가 한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 세계에 나누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선의 행위이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말씀으로 성장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단락**



정일형 안수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양육2팀장

팬데믹, 비대면 시대 복음 전파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밀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를 극단의 공포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비대면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 놓았다. 코로나 앞에 모든 나라는 차별이 없다. 강대국인지 약소국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 사회적 역할, 권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당하는 경험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던 중 한 장소가 기억났다. 필자는 영락교회 파송선교사로 10년 동안 남미 칠레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는데, 말씀사역을 위해 칠레 북부 사막 지역으로 가던 중 가끔 들었던 꼬피아뽀라는 도시의 산호세광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의 팬데믹 상황과 흡사하다. 2010년 광산이 붕괴하면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고립되었다. 음식이라곤 이를 치밖에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 좁은 공간에 갇힌 그들은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에 모두 함께 감염되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생존했고 69일 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온 세계의 매스컴이 뜻겁게 보도했다. 이것은 희망의 사건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함께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 그 한 사람의 희망!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산호세광산 33인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었다. 사고 얼마 전에 투입된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가 그 희망이었다. 모두 아비규환에 빠졌을 때 우르수아는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을 모아 격려했다. 각자 감당 할 일을 주어 일상을 살게 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치캔 두 개와 약간의 비스킷 등 이를 치밖에



남지 않은 식량을 놓고 분배계획을 세웠다. 공황 상태에 빠진 광부도 있었지만, 그는 절대 혼들리지 않았다.

바울이 죄수로 압송되어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호에도 풍랑이 닥쳐왔다. 275명 모든 승객이 절망과 공포에 빠졌다. 그들은 먹기도 포기하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권력을 친 백부장도 부를 가진 선주도 기술을 가진 선장도 군인들도 상인들도 모두 절망의 팬데믹에 빠져 있었다.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어젯밤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신앙생활이 주로 함께 모이는 것이었다면 팬데믹 이후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해야 한다. 가정 속에서 가정예배를 통해 희망을

선포하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 절망의 시대, 바울이 타고 있던 배와도 같은 환경 속으로 보내셨다. 가정에 희망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직장과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보내셨다. 지금까지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 나를 세우셨다. 이제 주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2. 나눔과 돌봄

팬데믹 시대의 선교는 더욱 구체적인 나눔과 돌봄이 복음에 수반하여 실행해야 한다. 칠레 산호세광산 지하 700m의 33인은 희망의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나눔과 돌봄의 작은 사회를 함께 이루어갔다. 이틀분밖에 남지 않은 식량을 감사함으로 분배했다. 참치캔 하나를 손에 들고 5병2어를 축복하신 주님처럼 기도하며 나누었다.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서로를 돌보게 했다. 우르수아는 각자의 역할을 도표로 그려서 인식시키며 서로서로 돌보게 했다. 교회는 그동안 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선교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해왔다. 팬데믹 속에 있는 세상은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희망의 복음을 보기 원한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그가 선포한 수많은 복음적 메시지와 더불어 결국은 페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감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나눔과 돌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르수아의 리더십은 결국 섬김과 돌봄으로 빛이 났다. 69일 만에 밖으로 구출될 때 거의 하루가 걸렸는데 그는 가장 나중 순서로 나왔다.

3. 접속, 새로운 접근

칠레 광부들은 이틀 치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7일째 기적이 일어났다. 지상으

로부터 뚫은 시추공 하나가 그들이 있던 공간으로 들어온 것이다. 전화선이 가설되었다. 광케이블을 통해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접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접속을 통해 33명은 나머지 52일을 아무런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었다. 이것은 희망의 접속이다. 현대는 접속의 시대다. 필자가 섬기는 부산장신대도 지난 학기를 비대면으로 마쳤다. 한 학생은 강의 소감을 남겼는데 “비대면이었지만 오히려 교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 좋았어요”라고 했다. 이미 새로운 접속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접속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 선교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희망의 복음에 접속되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매몰된 광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시추공을 뚫고 기어이 접속을 이뤄 33명을 안전하게 구출한 것처럼 여러 세대와 접속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팬데믹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이 상황이 선교의 기회일 수 있다. 초대교회의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기독교인들의 섬김을 통해 신뢰를 얻어 선교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린 것처럼 팬데믹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게 하자. 우리가 전하는 희망의 복음에 접속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감동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자.



허원구 목사
부산장신대 총장

국내 최고강사 신·구약 성경강해 들어보세요

- 한국미디어선교회 김운성 이사장 … 유튜브에 동영상 213개 공개

글·사진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한국미디어선교회 사무실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글귀와 함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교단을 초월해 이 선교회에 몸담았던 목회자·신학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김운성 이사장은 “코로나 시대에는 성경강해 동영상이 최적의 선교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에 관해 국내 최고의 강사진 48명이 녹화한 ‘성경강해’가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됐다.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운성 영락교회 위임목사는 지난 2월 말 코로나 19가 창궐하자 2010년 완성한 성경강해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성경강해 미디어 선교회’로 검색)했다. 30분

짜리 213개, 총 6400분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김상복 이동원 이성희 이영훈 최성규 장경동 목사와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박준서 전 연세대 부총장, 노영상 전 호남신대 총장 등 신학자들이 자원 봉사로 참여했다. 한국미디어선교회는 1982년 한경직 목사가 초대 총재로, 뉴미디어를 선교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성경강해 동영상을 무료로 인터넷에 올린 취지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이 되자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이들이 보고 공부하여 믿음을 돋독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교회 산파 역할을 한 김병삼(88) 장로님 등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신학대 총장님과 교계 어른들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료 없이 직접 강해한 것입니다.”

성경강해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체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단(異端)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 성경 공부를 빙자해 접근합니다. 그 배경엔 개별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성경강해 동영상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전 세계 스마트폰 인구가 50억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해 동영상은 스마트폰과 코로나 시대에 최적의 선교 도구가 될 겁니다. 우선 7개 국어로 번역 중입니다. 또 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세트를 제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가진 것의 절반쯤을 빼앗아 가고, 절반쯤은 새것으로 채워줬습니다. 역설적으로 초대 교회를 돌아보게 한 계기입니다. 초대 교회에선 예배당도 노회(老會), 총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었죠. 초대 교회 시절엔 교회에 다녀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갈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전도와 교인 등록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코로나 이전엔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면 이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고 있지요. 저는 이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자’고 강조합니다. 영락교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119일 동안 ‘119운동’을 벌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79운동’을 이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마음의 은혜를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 전망이 많습니다.

“교회도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기준은 재정 능력이나 교인 수가 아니라 ‘영적(靈的) 비전’이 되겠지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척교회라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겁니다. 반대로 규모는 커도 믿음의 열정이 부족하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디어선교회 초대 총재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후임으로서 한 목사님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지요.

“한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지요. 한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겸손과 긍휼을 타고나셨죠. 그런 성품과 노력으로 한국교회연합운동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2020 영락교회 선교대회를 소개합니다

- 선교, 이때를 위한 부르심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자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 4:13~14)

“왜, 이때입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절망과 고통의 탄식 소리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습니다. 일상의 변화는 선교 현장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국내와 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하지만, 75년 전 그때, 민족의 어둠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빛을 민족과 세계에 비추는 선교의 등불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빛은 민족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되었으며, 열방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멈추지 않는 영락의 선교를 통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열방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이기에 복음의 역사는 더욱 흥왕합니다. 바로 이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때이기에 하나님은 더욱 큰 빛을 비추는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20년 영락 선교대회가 ‘선교, 이때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10월 11일(주일)부터 16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영락교회가 이때를 위해 주께서 부르신 선교의 사명에 잠자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라는 질문이 “예!”라는 응답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때입니다!”

선교대회 사전행사로는 10월 9일(금)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에서 선교대회 특별 준비기도회로 모입니다. 11일(주일) 오후 3시부터는 베다니홀 1층에서 주안대학원대학교 김종성 교수님을 강사로 초청해 해외 선교 방향과 비전을 모색합니다.

이어서 주일 찬양예배는 학원선교 보고대회로 드리며, 중경 총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학원선교의 비전을 나눕니다.

10월 14일과 16일 오후 1시 30분에 드림홀에서 진행될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와 군선교 전략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토론하고 비전을 나눕니다.

10월 14~16일에는 매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선교부총회로 모이며, 선한목자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강사로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선교 사명의 도전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 사명으로 재무장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미리 아셔서 이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셨고 지금 이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이때를 위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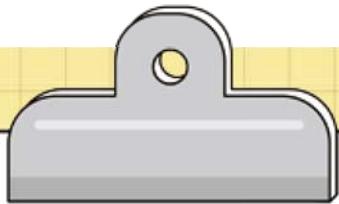


차동혁 목사
선교부 전담



2020 선교대회 주요행사 및 일정

날짜	행사	시간	장소
10월 9일(금)	선교대회 특별 준비기도회	금요기도회	본당
10월 11일(주일)	선교주일예배 해외선교 보고 특강 학원선교 보고대회	1~5부 15:00~16:30 17:00 찬양예배	본당 베다니홀 1층 본당
10월 14일(수)	수요 1부 기도회	10:30	본당
10월 14일(수)~ 16일(금)	선교부총회	19:00	본당
10월 14일(수)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	13:30~16:30	50주년기념관 드림홀
10월 16일(금)	군선교 전략세미나		



새가족 온라인 등록 및 교육



8월 9일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신 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본당 앞 새가족 접수 부스 또는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5주)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 후 새가족부 교역자 승인을 받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URL을 첨부한 문자를 새가족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새가족 온라인 교육 (5주)

1강 -	행복한 교회 생활(교회 소개)
2강 -	따뜻한 안식처, 교회(교회론)
3강 -	영원한 생명, 구원(그리스도론)
4강 -	아름다운 여정, 신앙생활
5강 -	영혼의 지도, 성경(성경론)

온라인 교육(5강)과 교역자 면담(2회)을 마치시면 정식 교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새가족부 02-2280-0115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의 교회 간 소통

-교회 회복과 치유의 매개 되어야



코로나19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 사회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감염증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로 대변되는 비접촉·비대면 방식으로의 급속한 전환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아노미(anomie)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기존 플랫폼 체계를 대체하는 온라인 디지털화가 대두되며 디지털 문해력(文解力·literacy) 습득을 위해 사회 모든 분야가 분주하다. 교육, 의료, 정치, 경제, 심지어 우리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 원격 성경공부, 유비쿼터스 묵상 및 경건훈련 등의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변화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심리적 저항감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이다. 코로나 우울증(corona blue)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정적 정서는 디지털 문맹(文盲·illiteracy)과 급속히 변화하는 플랫폼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다.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라 부득불 함께 있게 된 사람들(특히 가족)과 불통(不通)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구축했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어느 쪽은 지나치게 멀어지고 어느 쪽은 지나치게 가까워진 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인간관계 아노미 현상이다. 더 나아가 이전에 자유롭게 하던 행동과 습관처럼 굳어진 삶의 스타일에 큰 제약을 받고, 때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는데서 오는 당혹스러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이민자의 것과 같아서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당황스러움, 소외감과 절망감,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과 잇달아 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팽창된 정

서의 역학(dynamics)은 개인, 가족, 사회의 취약한 부분으로 집중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적으로는 신체화 증후군(somatizing syndrome)을 경험하며, 가정에서는 폭력(언어, 신체)과 방임, 사회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자신은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깊은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수용하고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은 단지 방법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시간과 공간, 개인과 상황, 처지와 기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원칙은 없을까? 짧은 지면이기에 이제 그 원칙을 한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라는 인간 실존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주 귀중한 피조물(창 1:27)이기에 사람으로 지녀야 할 고결한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죄성을 극대화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촉발하고, ‘나’와 ‘우리’라는 배타적 폐쇄성이 극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한 따뜻한 배려보다는 물염치한 냉혈한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인간에 대한 고귀한 책임감(noblesse oblige)을 갖기보다는 나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그의 책, 『Ich und Du』에서 인간관계의 의미를 역설했다.¹ 만약 ‘나’라는 존재가 ‘너’와 만날 때, 특정한 관계(예를 들어, 거래) 안에서만 ‘너’와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그 관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이라는 지극히 기계적이며 이익이라는 목적에 집중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부버에게 있어 참된 삶은 본질적 존재로서 ‘나’와 ‘너’가 고귀한 품격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

영국의 극작가인 서머셋 모옴(Somerset Maugham)은 그의 짧은 글 ‘레드(RED)’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비극은 죽음이나 헤어짐이 아니다. 사랑의 비극은 무관심(indifference)이다.”² 모옴은 죽음과 헤어짐이 깊은 상처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추억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무관심은 기억의 영역에서 제외된 서러움 그 자체라고 보았다. 비정한 무관심과 기계적 이익, 물염치한 이기심을 뛰어넘어 인간이 지녀야 할 고결한 품격, 즉 따뜻하고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대원칙은 어쩌면 당황스럽고 혼란한 현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자세는 아닐까. 이러한 품위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면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소통을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에 적용해야 한다. 이제 개인을 넘어선 교회 간 소통에 대해 제시한 원칙에 기초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혼란한 현재가 ‘나’와 ‘우리’라는 배타적 아집을 촉발해서 이기심에 함몰되는, 즉 인간의 죄성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복음의 에이전트로서 기독 정체성 함양과 영성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교회(ecclesia)이며 신앙공동체로서 개혁교회(ecclesia reformata)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교회론(ecclesiology)의 정립과

¹ Martin Buber, Ich und Du, 표재명 역,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1977), 14.

² W. Somerset Maugham, Collected Short Stories, Vol. 4. (New York: Penguin Classics, 1993), 407.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교회론이 이론적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천적 매개체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엡 4:1~3).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큰 교회이건 작은 교회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임을 인식해 각 지체가 건실하게 설 수 있도록 상호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엡 4:4~12). ‘나’와 ‘우리’라는 폐쇄적 함정에 빠져 ‘내 교회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이는(anaspora) 예배이건, 흩어지는(diaspora) 예배이건, 각각의 교회 형편에 따라 어렵게 결정한 예배의 형식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현금이 줄어들고 사역이 위축되더라도 오히려 어려운 형제 교회를 돋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지역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의 월세를 십시일반 부담하거나, 모든 교회에 적용 가능한 온라인 성경공부 콘텐츠를 개발해 나누는 것이다. 온라인 영상예배, 원격 성경공부, 혹은 SNS와 인쇄물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영적 관리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이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어·산촌 교회들을 위해, 또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들을 위해 녹음과 녹화, 유인물 제작 등 영성 훈련을 도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함(마 6:3~4)을 통해, 개교회의 색깔을 빼고 모든 교회를 위한 섬김을 실천해 공공성 혹은 공교회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마 6:19~20) 하나님께 부유해지기를 실천하는 첨경이기 때문이다(눅 12:21).

셋째, 공교회(Catholic Church)로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겨야 한다. 교단과 교파정치에 매몰되어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에서 벗어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아 복음의 관용과 배려를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빌

4:5).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를 전도와 선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도 부족한 위생용품이지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누는 것이다. 상대적 취약 계층들을 따뜻함으로 돌보는 것이다. 마스크 안에서 굳은 얼굴로 있기보다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짓고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필요한 도시락과 생필품을 배달하거나 시원한 음료수를 격려의 글과 함께 건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마5:16)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온 교회가 합심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과거의 역사와 상관없이 보낼 수 있다면 성금과 물품을 보내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터득한 예배의 노하우나 원격(화상 및 그룹채팅 등) 성경공부의 기술을 나눠야 한다. 교회가 만든 다양한 동영상과 녹음된 자료들, 인쇄된 출판물을 해외의 선교지와 목회 현장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고결한 품격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 교회 내, 혹은 교회 간, 더 나아가 교회 외적으로 소통을 이루어, 소통의 이유와 본질인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안남**



이상역 교수
장신대 실천신학 목회상담학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을 얼른 버립시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나에게 ‘소통’이 난제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소통 방법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도 나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인간의 오묘한 약점이 수많은 오해와 불신과 장벽이 되어 힘들게 합니다. 경험이 늘고, 나이 들어가도 소통은 늘 어렵습니다. 같은 인연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가 항상 많은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체험을 비추어 성경에서 불통 요인과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소통의 최고 전문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불통의 주요 원인

첫째,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짓말이지요, 거짓 유혹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대등해진다는 거짓 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의 과한 욕심에서 유래합니다. 어떤 이유든 구실삼아 내가 머리로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의인으로 인정하는 융도 하나님께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둘째, 진작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함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함은 남유다 왕의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지역에 있는 단과 벨엘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올라 갈 필요 없이 단과 벨엘에서 제사지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통치기반인 백성이 떠나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 형태가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안돼!’는 불통의 암적 요인입니다.

셋째, 사탄은 성도끼리, 이웃끼리 잘 소통하며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 고백 중에 끊임없는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말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불신과 분쟁을 조장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유독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사들이 힘들게 열심히 적과 싸울

때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꼭 악의적 시비를 걸고 뒷다리 잡다가 4만 2천 명이 동족에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기 전, 다윗의 사람인 요압 장군은 전쟁 중 자기 동생을 죽인 사울 왕 쪽 군사령관 아브넬을 사적 감정으로 죽였습니다. 아브넬 사령관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평화롭게 추대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성품이 의심을 받았고, 처신이 어려워졌습니다.

넷째, 무분별한 편향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 내 당을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불량배들은 잠시 유숙하는 레위 지파 사람의 첨을 무리 지어 욕보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징벌을 위해 불량배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을 감쌌습니다. 이 때문에 동족끼리 싸웠고, 10만여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겨우 살아남아 멸족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해결안

성경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채 가지 않아 소통이 막혀 버렸습니다. 관계가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통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랜 약속과 시련 과정 끝에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려한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인지 의심할 정도로 중죄인처럼 잡혀 묶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온몸이 찢기어 조롱과 멸시 속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일반적 해결방법과 달랐습니다. 최선의 소통 방법은 사랑으로 자신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열 개 문장입니다. 그 짧은 기도 내용 중에 소통 관련 문장이 네 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 악행을 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서는 먼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웬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 같고, 바보 취급당했다는 내 안의 다른 법의 속삭임에 속기 때문입니다. 이 속삭임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지방에 엎드려 기회만 있으면 들락거립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인간과 화해를 위해 최악의 수모를 감수하셨는데 이것을 승리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이것 이 나의 삶 속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복음송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이 하루도’를 소개합니다.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성두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친교부 서기

믿음의 면역체계



대학부는 젊은 세대들이 함께한다. 각 지체는 마을에 속해 믿음 생활을 나눈다. 마을 촌장과 부촌장은 집사님들이 이 맡아 섬기신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도 촌장/부촌장과 마을 사람의 세대가 다르고 삶과 경험이 달라 의견 차이가 종종 생긴다. 심해지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철부지로 부르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세대 갈등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면 같은 모습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실마리가 된다. 인류 전체를 가로지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중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10:10, 23)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방역이라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인구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말을 차단하고 손 소독을 하는 상황이 특별한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생활 방역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는 당연한 풍경으로 여기게 됐다. 창세 이후 계속 내려온 질병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언제나 이어져 내려온 팬데믹 질병, ‘죄의 바이러스(Sinivirus)’는 매일 우리 삶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질병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대면 접촉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반면 죄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더 그를 더 망가트린다.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지금 죄의 바이러스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잊고 원죄를 지닌 그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방법 중에 ‘집단면역(herd immunity)’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여기 저기 백신을 맞은 사람, 스스로 병을 이겨내 항체를 가진 사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는 사람 등이 많을수록 그 병의 전파 고리를 끊어서 허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된 믿음의 형제가 다시 죄에 감염되는 것을 지속해서 방지하고 사회로 죄악이 확산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 성도 간의 소통은 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우리 몸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체계를 가동한다. 여러 종류의 백혈구가 살균작용, 식균작용, 항체생성 등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모든 신체활동의 중심에는 신경전달과 호르몬 전달이 있다. 말초신경에서 수집된 정보가 중추신경과 뇌까지 전달되고 뇌에서 알맞은 명령을 내리고 호르몬을 분비한다. 처음으로 정보를 감지하거나 전달받은 세포가 그것을 다음 신경세포에 전달한다. 이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는 면역력을 갖춘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역할을 나누어 지으셨다. 교회도 몸과 같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4~27)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각 부분이자 신경세포다. 신체의 각 부분처럼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동시에 의인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받고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한다. 서로가 죄인이므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며 한 몸의 지체로서 사랑해야 한다. 성도 간의 소통이 살아날 때 교회와 사회는 믿음의 면역체계 안에 일어선다.

교회는 그 시초부터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을 불러 모아 세워졌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였다. 출신 지역, 직업, 가치관, 정치 성향, 연령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 교회만큼 단합하기 어려운 집단이 없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은 여느 집단보다 더욱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가 30대 이하 연령층의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만남**



김지민
대학부 에스더마을 부리더

총회 농촌선교센터 숙소동·관리사동 봉헌



2019년 5월, 교단 농어촌선교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총회 농촌선교센터의 숙소동·관리사동 증축을 위한 증축 후원 요청이 영락교회 선교부에 들어왔습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족동1길에 있는 총회농촌선교센터 숙소동과 관리사동은 그동안 농어촌선교 전문사역자 양성, 신학생 교육과 훈련, 해외 농업지역 선교사 및 해외 농업국가 현지인 목회자와의 국내 농어촌선교 교육과 훈련, 도농교회 상생선교를 위한 도시교회에 속한 청장년·대학부의 농촌선교 봉사훈련 등에 널리 활용되어왔으며, 시설이 좁고 낡아 증축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영락교회 선교부와 제1여전도회는 그해 7월 9일 총회 농촌선교센터를 현장 답사했고, 7월 23일 증축설계 공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9월 28일 10시 건축기공 감사예배를 드린 뒤 10월 10일 증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6월 9일 오전 11시 숙소동·관리사동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증축준공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건축을 위해 영락교회 선교부와 제1여전도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가 있었으며, 건축비용의 부족한 부분은 영락교회 안의 자치단체와 2019년 선교대회 기간 목적현금을 통해 많은 성도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건축 부지는 고





조규문 권사께서 농촌선교를 위해 구만리 교회에 기증하신 것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준공 감사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님께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농어촌선교에 부르심 받은 분들에게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많은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선교센터가 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농촌선교센터 속소동·관리사동 증축으로 농어촌선교의 교육관 훈련 사업 확대와 센터 활용성 다변화로 센터의 역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우리 교단의 농어촌선교사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농어촌 교회는 물론 해외 농업국가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 농촌선교센터는 인근 지역 사회 선교를 위해 사용되며, 매주 토요일 엄정 유스클럽 모임이 진행됩니다. 또 농촌 2개 교회 교인 중심으로 영우협동조합을 설립해 관련 활동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쉼과 영성 교육 훈련 등의 공간으로 한국교회 농어촌선교 발전에 기여하고 센터 재정자립을 도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농어촌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 개척과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까지 센터 운영을 위해 헌신해온 박 용철 목사님과 편찮으신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총회농촌선교센터를 통해 많이 맺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두희 안수집사
성동·광진교구,
선교부 농어촌선교팀장



코로나19 위기 속 다음 세대를 만나는 감사

김주신 선교사 _ 동북아

안녕하세요, 동북아 큐 지역에 있는 김주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 소식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곳은 지난 4월 말부터 이동 통제가 해제되어 저희 센터도 5월 초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동통제가 해제되면서 회사들은 다시 복귀되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시설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기로 하고 개학 전까지 종일 돌봄 교실을 정원제로 운영했습니다. 예민한 시기인지라 수시로 소독을 반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하던 때부터 동북아 전 지역은 이동 제한 명령이 떨어졌고 종교 모임 및 종교시설은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교회 예배와 모임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목회자 가정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는 문제, 모임 시설의 임대료연체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문을 닫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근의 지역교회들을 돋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중순에 힘들어하는 목회자 가정의 사모님들을 센터에 초대해 플라워 액자를 만들면서 함께 기도와 위로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학교들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개학하고 다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자료를 연구하고 만드는 시간으로 보냈습-

니다. 왜냐하면 이곳 교회들은 종교법으로 인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전까지는 몰래 운영하거나 가정에서 열악하게 운영하던 주일학교들조차도 코로나19가 덮치는 바람에 계속 모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와 단절되면 교회의 미래와 존폐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미래적인 대안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지역교회를 먼저 돋고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1일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여러 번의 캠프를 통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일 캠프를 마치 저희 센터 행사처럼 개최해 지역교회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같은 비상시기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때 저희 센터와 같은 제3의 신앙교육 장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끼쳤지만 제3의 신앙교육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밖 기관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버텨내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지역교회 아이들을 캠프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은 주중에 방학 돌봄 교실을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네 가정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현지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사역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일은 신앙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의 현지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신앙을 길이 보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 자료 제작 및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전도의 과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문화행사를 통해 나 눈다면 활용에 더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종교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지역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기독교 가치관을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으로 전래동화 인형극을 만드는 중입니다. 전래동화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새롭게 각색해 인형극을 만든 다음 문화 활동 형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같은 자료를 교회에서 활용할 때는 그 속에 함유된 기독교 가치관을 한층 부각해 강조하면서 나눕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사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작업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최근 크리스천 교육단체의 교사와 교회, 목회자, 관련 업종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교회도 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금씩 연합의 조짐이 보입니다. 교회 모임 형태도 도시교회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거나 도시목회 포럼을 개최해 목회자들이 미래 목회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 목회에 필요한 일들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사역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공동작업으로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신앙교육 활동자료’, ‘인도자용 설교자료’, ‘집에서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신앙학습자료’ 등 세 부류의 자료를 만들어 현지교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사역에 있어서 모여서 하는 활동 중심의 센터 사역이 거의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은 현지 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시설은 유기적으로 활동하기는 자유롭지 못하고 가정교회는 공동체 형식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육 가능한 장소들이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 ‘Way Maker’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담담해지거나 점점 불안이 커집니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 늘 흔들리는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지배를 받고 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낙낙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긴급구제금으로 초신자까지 감싸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 러시아에 아주 큰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올 1월부터 국경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했으나 유럽에서 들어온 자국민들에 의해 코로나19는 엄청난 규모로 번져 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1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김동익 선교사
러시아

현재는 4천~5천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력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참여로 이제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으로 상업 시설이 문을 닫고 거리 두기 등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호텔, 숙박 등 관광과 요식 업체, 쇼핑센터, 카페와 식당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조업단축, 업무축소, 근무일 축소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들은 모든 집회와 모임들이 중단되고 성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회의 상황과 지원 내용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을 파악한 영락교회 선교부는 타문화권 사역 현장에 대한 긴급구제지원을 결정했고, 제가 있는 곳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번 사태로 직장 폐업, 조업단축 및 업무축소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

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입 감소로 생활의 고통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월 20일, 선교부에서 지원한 긴급구제금을 이분들에게 지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구제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위로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영락교회의 사랑에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진한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사역에 지친 상태였으나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여 나눔의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은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라는 바울의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목회자를 방문해 구제품을 전달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교회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도 이번 행사의 큰 의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병 악화로 집중 치료가 필요했던 한 성도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러 간 날은 마침 비가 내렸

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랑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았고 실제로 이 정도는 구제금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역사로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은 일로 선교 현장의 성도들이 당하는 영과 육의 고통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쳐야 할 사랑의 짐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실천의 목적은 한 영혼의 구원이며 이것은 성도인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인 동시에 주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번 행사를 현지 교회 리더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인지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몸으로 배우며 훈련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긴급구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역을 실천하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날**

기도제목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1.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지 정부와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
2.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3. 선교지에서의 이번 위기가 사역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제3국에서 세례받은 아름다운 새 생명!

하영인 선교사 _ 태국

지난 3월 26일 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를 공표하기 직전인 22일 주일, 제가 섬기고 있는 태국 방콕 사판르앙교회에서는 일부 예배위원들만 교회에 와서 실제 예배를 진행하고 성도들은 자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날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할지를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예정대로 세례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중국어 예배부 소속 세 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배위원과 소수의 성도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거의 3개월 만의 시간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해 오던 영육반과 제자반 등 기타 모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7월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온라인 예배 후에 맞이하는 대면 예배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 제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았고, 적지 않은 동북아 유학생이 코로나19로 귀국했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참석할까?’ 그래서 제가



3월 22일 유학생 3명 세례식





7월 26일 동북아 성도 2명 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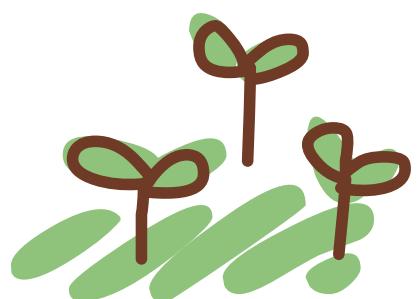
생각하기에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성도들의 명단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그리고 한참 기억을 되살려 힘들게 스물까지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올까?

목사인 제가 때론 정말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스물을 겨우 꼽은 제 예상과 염려의 마음은 대면 예배 재개 첫 주일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의 배가 되는 40명의 성도가 참석한 것입니다. 모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반갑다며, 코로나도 잊은 채 악수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일의 가치와 유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26일 주일에 올해 두 번째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중국어 예배부에서 또 두 분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몇 년 전, 오랫동안 섬겨왔던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해 마음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새로운 사역지 태국을 예비해 주셨고 코로나19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생명을 탄생시키

십니다. 이곳으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 교회라고는 모르던 젊은이들, 복음이라곤 들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은 실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쓰임 받는 저 또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두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만날**



교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교사는 교회 교육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사를 통해 감동하고, 변화되고, 신앙의 길에 이르게 된 수많은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교사교육부는 교사 교육을 준비하며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교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부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신입교사양성 사역

신입교사양성 사역은 해마다 이뤄지는데, 20주(학기당 10주)의 쉽지 않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교육이나 기독교 교양교육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세우는 영적 책임자로 서고자 준비하는 교육과정이기에 다른 과정보다는 더 깊은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신앙의 기초인 성경교육, 기독교 교리, 영성 훈련뿐 아니라, 학생 이해, 다음 세대 문화이해, 교사 역할 이해, 가르침 방

법, 대화와 상담 기술, 공동체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영락교회 교육철학과 역사 이해, 이단 관련 교육, 복음 통일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매 주일 교육부 각 부서 소개와 교육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을 마련해 교육 후 실제 교사 임명의 연결 고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교사 재교육 사역 : 다음 세대 기도회

영락교회는 7년의 교사 봉사 후 재교육 과정을 통해 다시 교사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사 사역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우기 위한 교사 재교육 과정의 핵심은 ‘영적 충전’과 ‘변화하는 현장 이해’라는 두 가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새롭게 교사 재교육 과정을 준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3시에 베다니홀에서 특별 강사를 통해 영락의 모든 교사(7년 이상 봉사의 재교육 대상 교사는 필수 참여)가 변화하는 세대와 문화에 관한 이해 및 특별한 간증 등을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다음 세대 기도회’가 그것입니다. 당초 올해는 매월 4번째 주일에 연중 7회의 교사 재교육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올해 67기 신입교사교육은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민과 기도가 더 컸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 섭외를 모두 준비해놓고도 개강 시점을 정할 수가 없었으며, 신입교사 모집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진 온라인 강의도 6개월 전의 코로나19 초기에는 설불리 결정할 수 없었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사야말로 ‘대면 관계’의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는 이들이기에 교사 교육도 가급적 대면 관계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신입교사교육을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6월 7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어렵고 낯선 상황에도 교사교육부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대처해 주셨고, 기대보다 많은 76명이 신입교사를 신청했습니다. 대면 만남 없이 신입교사 지원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교사교육부 임원들께서 조별 리더를 맡아 더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학기 전체 출석 인정 비율이 88%로, 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기수들의 수료율에 비해 약 20%나 높았습니다. 또 성심성의껏 기록해주신 보고서 내용은 임원진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현재 67기 신입교사들은 10명씩 한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에는 원활한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부 교사 1명이 조장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학기 교육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부서탐방이나 조별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겨주실 교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기도회’라는 교사 재교육 과정도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9월부터는 원래 예정된 남은 3번의 다음 세대 기도회(9월 27일, 10월 18일, 11월 22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비대면 시대에 진정한 대면 관계를 경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67기 신입교사 교육의 남은 일정과 기존 교사들을 위한 ‘다음세대기도회’가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남**



백성우 목사(교육 전담)
교사교육부

웹으로 찬양과 말씀, 아이들과 함께 기뻤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서울로 퍼지면서 아쉽게도 지난 3월부터 모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예배도 예외가 아니지요.

저는 소년1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두 딸 박시연(초등1부)·서연(유년1부)은 CEBC와 찬양 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실감하지 못하다가 막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처음에는 어색한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적응해가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배 덕분에 잘 따라가고 즐겁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7월이 되고 여름성경학교를 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소년부를 비롯해 아동부서에서는 아직 단체 캠프 형식의 여름성경학교가 무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병행 여름성경학교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즐겁게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했던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무척 아쉬워했지만,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 주에 각 부서에서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성경학교 박스를 받아들고 아이들은 너무나 신났습니다. 큰 선물을 받아든 것처럼 즐겁게 박스를 개봉하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재와 활동에 필요한 염색 손수건, 풍선, 맛있는 간식 등 알차게 구성된 박스를 보고 손수 준비하고 발송하셨을 선생님들의 노고가 느껴져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게도 아이들을 챙긴다는 이유로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소년부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듣고 사진으로도 봐서 알고 있기에 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여름성경학교 날이 되었습니다. 미리 공지하신 웹 주소로 접속해 즐거운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해 예배를 드리고 김운성 목사님의 말씀도 감명 깊게 들으며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이기도 한 'I'm a C(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즐겁게 율동을 따라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난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흥미로운 영상 퀴즈, 라이브 멱방 등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주일까지 이어진 여름성경학교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매주 아무 걱정 없이 교회학교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여름성경학교를 경험하며 느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만나**



김은하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소년1부 교사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참가기를 김은하·박시연 모녀의 글로 실습니다. -편집자

짜파구리 만들기·암호 해독·공과 공부 정말 재미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2020년 여름성경학교!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재미있었고 전도사님들도 재미있게 진행해주셨다. 즐거운 유통과 찬양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 여름성경학교 중간에 실시간으로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다. 중간중간 영상 퀴즈(한강에서 있었던 일 등)도 정말 재미있었다.

전도사님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면 선물도 있다고 하셨다.

친척 동생과 내 동생, 이모, 엄마 이렇게 5명이 같이 봤는데 엄마와 이모가 힘들어도 문자를 잘 보내주셨다. 그런데 문제도 참 재미있지만, 정답이 웃기고 어려워서 맞힐 수가 없었다. 퀴즈의 신인 내가 이걸 못 맞히다니 아주 머쓱하기도 했다. 공과 시간에는 암호를 해독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난 4학년이고 동생들은 1, 2학년들이라서 어렵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동생들은 거울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좀 많이 어려워했다. 동생들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려워는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실시간을 할 때 최혜원 전도사님이랑 이승용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서 아이스크림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되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았다.



큰 딸 시연(왼쪽)과 작은 딸 서연은 선생님들이 정성껏 포장해 보낸 여름성경학교 상자 '언박싱'부터 즐거웠다.

1부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2부에는 라디오코너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나왔고 정말 재미있었다. 사연 중에 내 친구도 나왔다. 내 친구라 그런지 사연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 또 활동 중에 손수건을 염색하는 게 나왔다. 손수건을 직접 염색하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난 색종이를 쓰지 않고 그냥 패브릭마커만으로 아보카도 무늬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했다. 중간중간 꽃도 넣었다.

이렇게 염색을 하고 간식을 먹고 싶었는데 딱 마침 참치, 치즈, 크래커로 크레페를 만들었다. 너무 재밌었고 맛있었다. 전도사님들께서 인사이드아웃 캐릭터를 패러디하셨는데 소심이가 조금 불쌍해 보였다. 반대로 버럭이한테는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또 새로운 찬양도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쉽고 간단해서 잘 따라 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였지만 라이브방송, 라디오 등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많은 아동부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 같다. **만날**

박시연_초등1부

신앙의 성장통 속에 믿음의 정체성 찾아



올해 대학부 수련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교회와 사회의 많은 일이 그랬듯 매우 특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된 덕분에 대면으로 열릴 수 있었던 점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8월 9일, 16일 대학부 주일 예배와 14일 금요찬양 예배 시간에 “Back to the basic”(신 6:4-5)이라는 주제로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말씀과 기도를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전날 토요일에 학생회 친구들과 경건회를 했습니다. 신앙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

뢰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식탁도 멋지고 세상의 식탁도 욕심이 나기에 두 식탁을 적당히 옮겨 다니며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비슷한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양쪽을 탐하며 갈팡질팡하는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리감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진솔한 고민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나누며 우리는 공감을 많이 했고, 세상에 속해 사는 이상 각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임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나눔 중에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이

‘신앙의 성장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보낼 방법이 무엇일지 수련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음날부터 진행된 수련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청년의 비전, 믿음’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저의 고민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9일에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회)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을, 14일에는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삶(비전)’에 관한 말씀을, 수련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차태환 목사님께서 모노드라마를 통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수련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었고 신앙의 성장통은 죄에 대한 패배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다져가는 흔적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고민의 해답은 여름수련회 주제인 “Back to the basic”처럼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식탁과 세상의



식탁이라는 순간을 마주하며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감사함이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부대 행사나 활동 없이 오로지 목사님들의 말씀 시간만 허락되었지만, 그런 만큼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특별한 수련회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남**



윤영주
대학부 학생회장

왕은 누구인가 :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왕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여름 부흥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진행했던 그 동안의 수련회와 달리, 8월 9·16·23일 세 번의 주일 부흥회와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참여가 많고 재미있었던 것이 이음 프로젝트다. 이음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워지도록 하는 관계회복 프로젝트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자신의 ‘이음 프렌즈’를 한 명 뽑아서 그 친구를 위해 2주간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음 프렌즈를 맞힌 친구에게 선물도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한 것 같다.

‘왕은 누구인가’라는 주제 활동으로 한 번의

금식 참여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새벽 기도회, 매일매일 올라오는 요일별 말씀 만나, 10시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연습을 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번 부흥회 기간에 매일의 기도회 시간을 통해 하루 세 번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평계를 대면서 말씀 만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10시 기도회를 드렸고, ‘내일 새벽에는 꼭 일어나야지’ 해놓고 도 일어나지 못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런 스스로에게 ‘넌 왜 항상 일어나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기는커녕 의무감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주님을 바라봤던 10시 기도회에서는 항상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낫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 자신의 이름 프렌즈를 위해서 기도했다. 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낫아지신 예수님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더 부유하고 행복하면서 또다시 예수님께 달라고 내가 더 높아지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일 기도회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십자가에서 낫아지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아지게 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진짜 낫아질까 봐 두려워서, 정말 가난해질까 봐 무서워서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한 주간의 내 기도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모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도드리려고 했다. 그날의 말씀 묵상을 모두 지켰던 날은 하루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부흥회 마지막 주일이 되었다. 마지막인 만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아쉽게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다. 설교 중에, 자신의 손을 예수님 손의 못 자국에 직접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던 도마 이야기가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직접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라”고 말씀하셨다. 그 뒤에 도마가 한 고백이 잊히지 않는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께서시니이다.” 이 고백이 평생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도마처럼 독한 말을 해도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부흥회 기간 하루 세 번 기도하지 못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 내 힘으로 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께서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다. 이번 부흥회 후에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
나님이시며 나의 왕
이십니다. 아멘. **한남**



김가은
고등부 학생회장

한 알의 밀알이 된 순교자 김창화 집사의 생애와 감사



김창화 순교자

봉헌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의 김응락 장로님과 김창화 집사님이 함께하십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는 터투리안의 말처럼 순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실천한 예수님의 훗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김창화 순교자는 1915년 1월 9일 평북 의주군 피현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피현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37년 선천의 명문 신성중학교(信聖中學校)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평양사범 연수과를 수료한 후, 의주와 신의주에서 초등과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광복 이듬해 1946년 3월에 가족과 월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월남 후, 신성중학교 시절의 은사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인 장리욱(張利郁) 박사의 추천으로 서울사대부속중학교(당시 6년제)의 수학 교사로 부임하여 1950년 6월 25일까지 4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는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1866년 순교)를 위시하여, 백홍준 장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등 개신교 순교자 265

분의 영정과 행적이

것이 (1)을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인성교육 (2)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철저한 봉사와 실천이었습니다. 교무처장의 직책을 맡았을 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좌편향 학생들을 징계하고 퇴학을 시키는 과정에서 집단 테러도 당했습니다. 6·25 사변으로 수도 서울이 점령되자 좌익계 제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인민재판 끝에 그들에게 총살형을 당했으며, 순교 직전 5분간의 시간을 얻어 주님께 기도드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장소는 근무하던 학교 뒷산으로, 임금들이 하늘에 기우제(祈雨祭)를 드리던 동대문구 제기동의 선농단(先農壇), 청량대(淸涼臺)입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의 봉사와 실천과 열매

김창화 순교자는 서울사대부중 재직 시 기독학생반을 창립하여 학생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었고, 영락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중등교사로서 봉사했습니다. 순교자께서 창립한 서울사대부고의 기독학생반은 이후 크게 번창하여 많은 졸업생이 성우회(聖友會)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문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성우회 회원 중에는 작고하신 송설대 어윤배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등 기독교대학 총장이 네 분이나 나오셨고 목회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교 지도자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순교자께서 뿌리신 한 알의 밀알이 맺은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유가족

1950년 순교 당시 유가족은 29세의 아내 백옥현과 어린 네 딸이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수) 본당에서는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김응락 장로, 김창화
집사 순교 70주년 추모예배가 열렸다.

하나님의 은총과 한경직 목사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배려, 밥 피어스(Pierce) 선교사님과 좋은 인연으로 인하여, 전쟁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딸들은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선명회 장학생으로 서울사대부고를 나와 대학을 졸업하고, 큰딸은 소아과 의사로, 세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순교자의 후손은 손자와 손녀 9명, 또 증손 8명 등 모두 33명이 됩니다.

이들은 지구촌 한국의 서울, 온양, 대전, 군산, 순천에서, 멀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뉴저지, 호주 시드니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 지키려고 이북에서 이남으로 온 것이니 신앙생활 잘하라”는 순교자의 유언을 따라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순교자의 소망대로 이루어진 바탕에는 신앙생활은 물론 매사에 철두철미한 백옥현 권사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도 철산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권사님은, 오빠인 백봉현 증경장로님, 조카인 백문철 은퇴장로님과 함께 평생을 영락교회에서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경직 목사님과 밥 피어스 선교사님이 월드비전과 한국선명회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세웠습니다. 부산의 다비드모자원에서 시작된 고아들을 위한 구호사업체인 월드비전은 기독교 최대의 구호단체로서 99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구촌 이웃을 섬긴다’는 이념의 월드비전 최초의 결연가정이 김창화 순교자의 유가족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넓고 아름다운 영락동산은 영락교인들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2007년 11월 27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창화 집사님 순교비 제막식이었습니다. 바로 옆자리가 역시 6.25 사변 중 교회를 돌보다 순교하신 김응락 장로님 묘소입니다. 영락교회의 순교자 두 분이 바로 이웃사촌이 되셨습니다. ‘부모님 분묘를 영락동산에 모시고 싶다’는 큰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5월 27일 백옥현 권사님이 소천하시어 합장했습니다. 매년 아름다운 영락동산에서 두 분의 추모예배를 드리는 우리 후손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이철신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교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



이광정 성도
강동·송파구
김창화 순교자의 셋째사위

맡김의 훈련소

“신입을 뽑을 때 뛰어난 능력을 원하지 않는다. 기술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왜 요리사가 되려는지 그 마음을 보려고 애쓴다.”

며칠 전, 아침 신문을 뒤적이다가 서울의 어느 유명 호텔 조리팀장이 쓴 칼럼에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세속의 일꾼을 찾을 때조차 당장 써먹을 현실적인 계산보다 사람의 본질에 시선을 두고 진정한 일꾼을 찾아 헤매는 고수의 깊은 혜안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일에서도 이럴진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도대체 내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부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부르신 분의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나야?’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뜻하지 않은 사건·사고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죄송스럽게도 주님의 부르심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부르심은 로또 당첨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듯합니다.

저 역시 구역장으로 부르심이 왔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가슴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우셨던 전도사님께서는 설득 대신 거래를 제안하셨습니다. “일 년만 맡아주시면 연말에 꼭 교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절 불가의 카드를 내미셨고, 그 카드가 ‘주님의 종’의 약속인 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진했던(?) 집사는 그렇게 털컥 구역장이 되어 이제 4년 차가 되어갑니다.

아, 그 전도사님은 그해 연말에 우리 교회 임기를 마치시고(저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으신 채), 부목사님이 되셔서 다른 교회로 떠나셨지만, 이제는 그 일도 토기장이 주님의 결정에 따른 일이라 믿어져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정란 권사
용인·화성교구 26구역장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싫어하고, 못 하는 부분을 콕 찍어서 맡기셨습니다. 구역예배에 개근하시는 구역식구들을 모시고 첫 데뷔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나하고 안 맞는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일 년만 버티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빼고 나면 사실 구역예배로 모이는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예배인도자’라는 부담과 ‘내가 지난 세 월 동안에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시는’ 친정어머니가 구역예배에 1+1묶음으로 동행하시니 평소의 나와 다른 모습을 연출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일 년이라도 버티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동아줄을 잡아야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서 성령께 온전히 맡긴다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날탕 집사’를 개조하시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졸업이 없는 ‘맡김의 훈련소’에 위탁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교재는 기가 막힌 개인 맞춤형이었습니다.

변화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피로감에 지쳐 우울증까지 불러일으키는 ‘코로나 사태’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날, 함께 사는 친정엄마와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울컥했습니다. 텅 빈 성가대석을 배경으로 온라인 너머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적응능력은 참으로 신속했습니다. 몇 달 계속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슬슬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이 현장예배 참석에 대한 간절함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공동체와의 물리적인 고립이 마치 신앙의 중간점검 기간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자발적 신앙인지, 아니면 이유식을 끊지 못하는 의존적 신앙인지 가름이 되는 지금이야말로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의 실제상황입니다.

구역예배와 교제,『만남』전달이 구역식구들과의 주된 접촉점이었지만 소모임이 중단된 현 상황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해도 구역장 개인 차원에서는 그분들의 현실적인 소외감 해소를 도와드릴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때맞춰 준비된 듯한 119대작전과 이어진 179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 카드를 매일 구역식구들께 보내드리는 것이 그분들께는 관심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문자의 홍수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수신을 거절하는 젊은 세대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하신,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조화를 통한 참신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예언(?)들이 쏟아집니다. 시대에 맞는 구역장의 정체성과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봅니다. **만남**

믿는 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아스라이 저녁 해가 지고 있다.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있다.

학교 졸업 후 유년부 성가대 지휘자 및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아이들과의 만남은 늘 설레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아왔던 자로서 봉사를 실천함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으뜸이 되고자 하나님을 높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나님을 높이세요.
내가 최고 안 돼요, 내가 먼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목청껏 찬양하며 기쁘게 드리는 예배**

한 번은 우리 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부모님께 허락받은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모인 후 우리 집에 도착했다. 맛있는 식사와 간식 그리고 놀이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주일 날 아침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를 향

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교육이 관계이고 관심임을 아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산을 앞두고 5년 간의 봉사를 감사함으로 마감했다.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선배 지도 권사님의 권유로 유치부 교사로 부름받고 25년 동안 영아·유아·유치부 교사로, 지도자로, 부감·부장으로 섬기며 영락의 다음 세대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다. 부모님께 안겨서, 혹은 손잡고 오던 아이들이 성장하며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했다. 지금은 각 가정의 부모로, 사회인으로 성장해 본 교회에서 교사, 찬양대원, 지휘자, 반주자 등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외국에서 살다가 휴가나 방문차 온 제자들을 영락의 뜰 안에서 종종 만나기도 한다.

어린이집 원장 퇴직 후 6년 전부터 평생대학에서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영락교회 평생대학은 영락교회 등록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이웃의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교사로서의 봉사와 평생대학 교사로서의 봉사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교육부 봉사는 어린이와 가정을 섬기는 것이라면, 평생대학 교사는 어르신들과 삶을 나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만큼이나 다양한 간증과 만남이 있다.

수요 1부 예배를 마친 후 지하 2층 식당에서 식사로 교제하고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반별 성경 공부에서는 원-스톱으로 직전 주일 위임목사님 설교 말씀을 주제로 삶을 나누고, 체조와 찬양, 예배를 드린다. 14시 이후에는 24개의 특별활동반에서 특별활동에 자원한 학생들을 자원봉사 교사들이 섬기며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 매년 베다니홀에서 발표회, 베다니광장에서 전시회 개최 및 한 번의 소풍에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2020년 평생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개강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어르신들은 방학 숙제로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119말씀 묵상과 179(한 친구)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서 지낸 만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완성된 것 같지만 완성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삶의 동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한다. 유혹의 겉옷을 벗어 던진 요셉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에스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평생대학이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실천함으로 말의 권위가 있는 노년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평생대학을 꿈꾼다. **만남**



이혜영 권사
서초교구
평생대학 총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간절히 나아가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하는 ‘한국교회 구국기도대성회’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3일간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청해볼까 싶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는 그에 담긴 간절함과 의미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금식에 실패하면 합심 기도에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던 중, 여전히 금식을 결단하지 못한 채, 그래도 나라를 위해 기도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우선해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받은 접수 확인증을 보니 글쎄 저의 이름과 함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한국교회 구국기도대성회에 3일간 금식하고, 3일 동안 중보기도 용사로 참가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3일간 금식하고”에 노란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까지 강조된 것을 보고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내 ‘구국기도대성회는 이런 다짐으로 참가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함께 마음을 모아 야지’ 하는 생각에 금식 결단을 하고, 6월 25일 시작 날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구국기도대성회 첫째 날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부터 6·25 전쟁과 북한에 관한 강의까지 기도로 부르짖고 말씀을 듣다 보니 배고픔이 느껴질 새도 없이 순식간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오후부터는 금식이 힘겹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기도하던 목소리는 작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눈감으면 기운이 없어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시시때로 두통이 오고 몸 여기저기가 어찌나 아픈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어 예배당 밖에서 예배 현장을 보여주는 TV 앞에 서 있다 앉아 있다 하며 예배드렸습니다. 힘이 없고, 몸이 아프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루 이틀만 먹지 못해도 이렇게 힘든데, 굶주리는 북한의 이웃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금식이니까 어제 하루만 한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은 뭐 좀 먹을까?’ ‘차라리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이 ‘간절한 마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의 마음은 점점 금식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 특강



에서 마태복음 25장 35~40절을 인용한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 25:35~40)

우리의 금식 기도는 곧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북한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마음에 불씨를 심어줬습니다. “예수님, 금식이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라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그 의미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저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금식은 힘겨웠습니다. 구국기도 대성회 마지막 셋째 날에도 몸이 좋지 않아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

고, 기운이 없어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영혼들과 예수님을 생각하니 궁합과 간절함이 커졌고, 여전히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이 도우시는 금식은 마치 배가 고파도 기운차게 거뜬히 감당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국기도대성회에 참여하며 깨달았던 금식의 의미는 힘과 기운이 없어도, 초점이 흐려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힘겹게 드린 저의 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나라와 북한 땅, 복음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동참했다고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달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만민에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저와 참석자 모두가 구국기도대성회를 통해 부어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



김효진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먼저 올해 산상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린다.

올해 제60회를 맞이한 산상기도회를 어느 해보다 더 잘 준비하고 싶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의 엄중함이 가중되어, 산상기도회를 열 수 있을지부터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방역 수칙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경우, 예배 공간이 부족해 여느 때처럼 예정되었던 기도원이 아닌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본당에서의 산상기도회 매뉴얼이 있을 리 없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성도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성도들을 교회로 나오시게 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

준비 과정 중에도 사회적으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1, 2차 집행위원장과 기도회를 섬기실 많은 일꾼이 세워졌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목양부와 합력하며 하나하나 준비했다.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강화조치에 장소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직면한 어려움에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감당해 주신 봉사자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산상기도회 날짜가 임박해서야 방역 강화조치가 해제되었다. 애초에 목요일 저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준비했는데, 기도회 직전 온전하게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의 기도가 이어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60회 산상기도회가 열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개최가 확정되고 안심한 순간도 잠시, 이번에는 장맛비가 큰 문제로 등장했다. 기도회가 임박하고부터 매일 매일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 과정 중에서도 응답은 계속되었다. 첫째 날 예배 전에 비가 그쳐 강사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봉사자들 전체 촬영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1차 강사 목사님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목사님으로, 목사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6개월 동안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되고 처음으로 영락교회 산상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셨다. 6개월 동안 비축하신 힘으로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계속되는 장맛비 속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2차가 진행되

었다. 1차 산상기도회 집행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더해지며 순적하게 진행되었다.

2차 강사님은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으로, 영락교회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입 재수생 시절 영락교회에 출석하시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 하셨다.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시며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을 향해 영적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듯 온 마음 다해 말씀을 전하셨다.

기도원에서 열리는 산상기도회는 예배를 일곱 번 드린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강사 목사님은 모두 일곱 번 설교하시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횟수가 다섯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1, 2차 모두 두 분 목사님은 준비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 더 전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다.

특별한 은혜는 2차 금요일 새벽 예배였다.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교회 주변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예배에는 차질이 없었다. 설치한 지 40년 된 발전기가 예배를 위해 처음 가동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 백병원 관계자가 화재로 오인해서 119에 신고했고 교회 밖에는 소방차가 출동했다. 하지만 바깥의 소란과 상관없이 본당 안 모든 성도는 조용한 가운데,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고, 이 또한 감사의 순간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알고 있다. 올해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많은 일꾼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 산상기도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산상기도회’로 남을 것 같다. 제60회 산상기도회를 본당에서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안녕**



최범용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목양부 차장

오직 복음과 기도와 성령과 감사의 능력으로!

저는 1차 산상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김인중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저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며, 나의 유익만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그 무엇도 양보하지 않고 내 고집과 자만으로 가득했는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에도 게을렀고, 매일 묵상하고 QT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했는가? 하나님처럼, 에스더처럼 자녀들을 위해 신실하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생들과 이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배려했는지…, ‘내 자녀 내 남편 내 동생도 돌아보지 못하는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보며 선을 베풀어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김인중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어서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였습니다. 당시 서대문에 있던 동산교회 서리집사였던 친정어머니는 김인중 강도사님이 반월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신이 기도로 도와드려야겠다고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다녔고, 그 밑의 아이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막무가내로 이사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하에 있었는데 예배실 강대상 뒤에 칸을 막아 방과 주방을 만들어 사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전도사님을 모실 수도 없어서 사모님이 이화여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두 분이 참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모님은 둘째 선민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담요를 둘러쓰고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전도하다가 이삿짐을 날라주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안산 원곡동에 새로 2층 주택을 지어 교회로 사용하실 때, 1층은 교회, 2층은 사택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귀신 들린 자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귀신에게 큰소리로 명령할 때 마침 사모님 동생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찌나 민망하던지… 사모님 동생은 아마 ‘이화여대 교수였던 우리 누나가 어찌다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안산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살아계실 당시 안산동산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을 뵙는 것 외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산상기도회를 통해 40년이 지나서 뵈니까 좀 어색했습니다. ‘발음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목사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지금의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주무실 때 넥타이도 풀지 않고, 새벽기도 후에는 직원들이 올 때까지 교인 수첩을 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흔들면서 기도하던지 아이들이 목사님 등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공단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서 사모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로 식사를 해결했고, 명절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는 100만 명에게



영어로, 불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 선한 행실로 이웃을 감동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노년의 삶이 되길 다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후회 없이 하나님 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만날**



이영숙 은퇴권사
강동·송파교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주간에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외부 집회를 많이 인도했고, 그 모든 집회가 다 특별하고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 영락교회에서의 집회는 제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매 주일 멀리서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바로 그 강단에 서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수할 때,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고등부 때부터 저를 인도하셨던 저의 멘토이신 전도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사역하셨기에, 주일마다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이라, 주중에는 독서실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학원에 다니고,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그 시간이 제게는 마치 특별한 영적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재수생이라는 불안하고 무너진 마음이 예배당에 들어가 앉기만 하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내용 이전에 그 자체로 저의 심령에 영적인 생명력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재수할 때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했기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단지 설교자가 아니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의 확인이었습니다. 현실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만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정말 제게 특별했습니다. 그



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여기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겠다고 소망했던 적은 없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강단을 바라보면서 열망하고 갈망하던 그 젊은이의 눈빛을 보셨고, 그 마음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늘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그 깊은 간구를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만날

임플란트 치아를 오래 사용하려면



임플란트에 대하여

상실한 치아가 있을 때 치아 수와 상관없이 임플란트는 인접 치아를 갈아내지 않고 빠진 치아만 수복할 수 있는 최신 치료 방법으로 맛있는 식사와 대화하는 데 있어 자신감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은 경우, 임플란트하면 틀니로 인한 이물감, 잠들기 전에 틀니를 입안에서 빼내어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 평상시 틀니가 잘 빠짐으로 생기는 민망함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치아가 빠진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빠진 후 6개월 이내에 빠가 가장 많이 흡수되므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가영 권사
서초교구
치과 전문의

치과적 검사

치과적 검사는 임플란트 식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턱과 식립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치과 및 의학적 병력

치과 시술 전 치과 및 내과적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당뇨병, 출혈성 질환, 신장투석, 심장 질환이 있는지, 혹은 약물치료 및 흡연, 알코올 습관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회복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골다공증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뼈를 생기게 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식립 후 뼈의 재형성 과정 중 임플란트 장착을 방해하므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검사

구강, 턱, 머리 그리고 호흡기도 구조와 건강, 형태, 씹을 때 치아의 맞물림 방식 등을 살펴봅니다. 가끔은 석고주형을 만들어 진단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인 파노라마 X-선이나 그 밖의 CT 영상 검사를 통해 치아와 악골, 턱에 대한 이상 유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질병이 있는 경우는 시술 전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 상태는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강이 건강하다면 임플란트는 더욱 더 적절히 식립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한 건강한 구강

위턱과 아래턱은 서로 얼굴의 구조를 만들고 치아의 지지기반을 만듭니다. 턱뼈는 골수를 둘러싸

고 있는 단단한 뼈가 충분해야 임플란트를 잘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잇몸은 턱뼈를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하게 됩니다.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1 : 뼈 이식 수술

뼈가 임플란트를 지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턱뼈의 폭과 높이를 증가시켜주는 시술로 턱 이외 다른 부분에서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은 위턱의 뼈가 너무 낮을 경우,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구멍을 낼 수 있으므로 뼈 이식으로 적절한 임플란트 길이를 심을 수 있게 높여주는 수술입니다.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2 : 조직재생

뼈 이식 후 적절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막을 덮어주는 것으로 연조직의 성장 속도를 늦춰주고 새로운 뼈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티타늄 임플란트는 인체에 친화력이 높아서 거의 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연치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또한 턱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철물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대체할 수 있으며 턱뼈의 모양에 따라 식립하고 환자가 고정성 보철물을 할 것인지 틀니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접촉할 것인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시술 과정은 1회 수술법(One stage)과 2회 수술법(Two stage)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턱뼈가 많고 건강한 경우는 1회 수술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회 수술로 2~6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및 진통제를 복용하며 항균성 구강 위생 액으로 가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수술 후 약 2주간은 칫솔, 혀 등으로 건드리지 말며 최종 보철물이 들어갈 때까지는 수술한 쪽으로 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유를 돋기 위해 틀니를 사용하였던 경우는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치과에 연락해야 할 때

- 혀 밑으로나 턱 주위가 보통 이상으로 부어오를 때
- 열이 나거나 출혈이 계속될 때
- 치방된 약으로도 턱이나 입 또는 상악동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

후속관리

수술 후에는 지혈을 돋고 얼굴의 부기가 가라앉도록 얼음주머니를 사용하면서 편안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은 짐질방이나 뜨거운 물 샤워, 격한 운동을 피하도록 합니다.

정기적 구강 검사를 권하며 임플란트 식립을 잘

관리하는지 살펴야 하고 남은 치유기간 동안 사용했던 틀니도 바닥을 보완하여 편안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합니다.

몇 개월 후 뼈가 형성되고 단단히 치유되면 상부 구조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치과에 연락하십시오.

- 턱에 통증이 있을 때
- 씹는 느낌이 이상할 때
- 임플란트가 헐거워짐을 느낄 때
- 보철물이 헐거워졌거나 조각났을 때

지속적인 치아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구강 관리와 년 1~2회 정도 임플란트와 주변 잇몸을 확인해야 하고 팝콘, 견과류, 오징어, 갈비, 물렁뼈, 해물 등 단단한 것은 삼가야 임플란트 기둥의 부러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날**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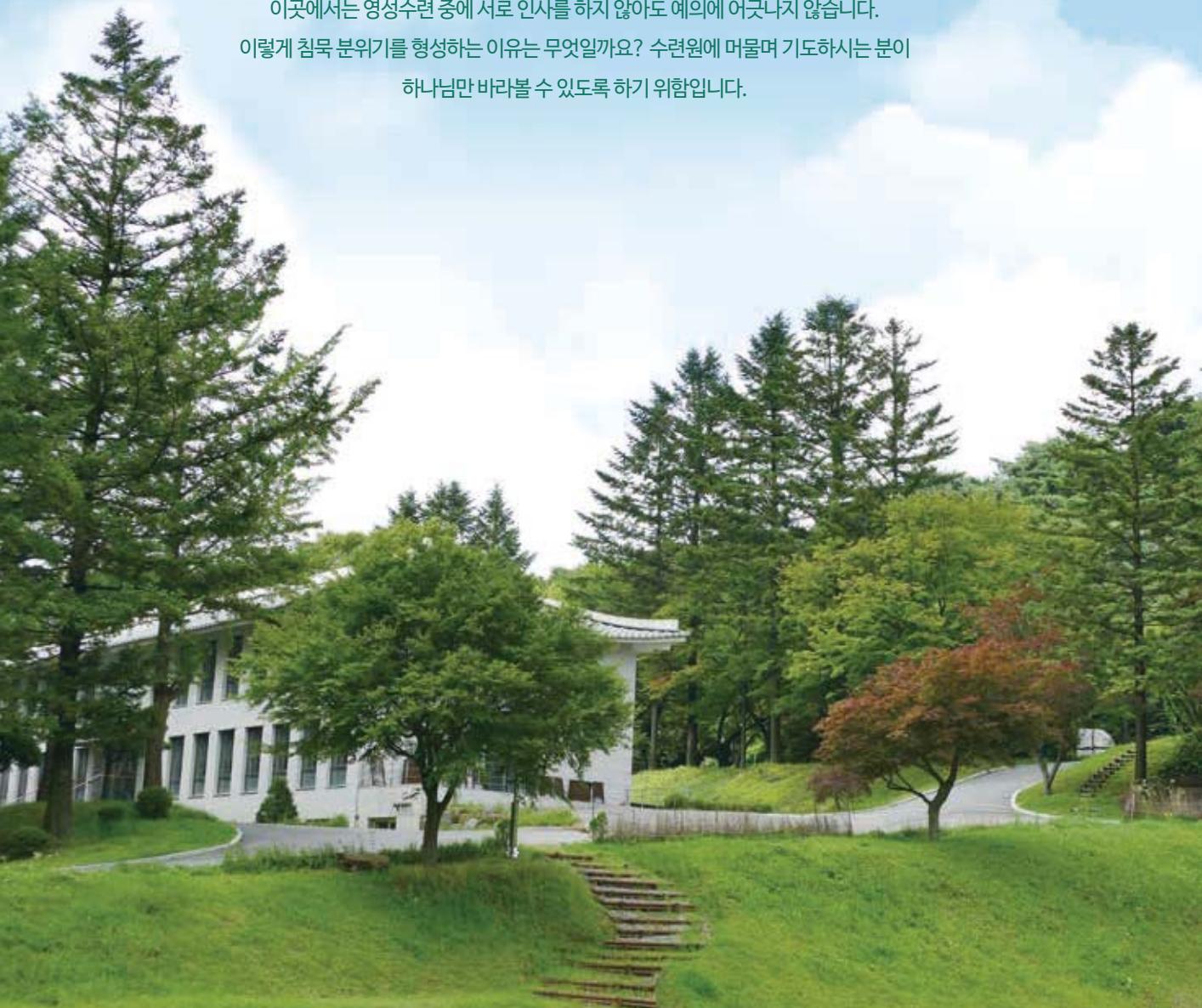
글 신대군 목사 _ 영락수련원 사진 원종석 기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이 이어지는 곳,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곳, 바로 영락수련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성수련 중에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련원에 머물며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락수련원



자연 만물 모두는 하나님의 훈적을 품고 있습니다. 영락수련원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예수님 생애목상 동산을 거닐며 목상함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우거처는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열매를 맺고,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영적 여정이 완성된 성지입니다. 2018년에는 한경직 목사 우거처 단지 안에 30석 규모 예배실인 '팔복재'를 준공하였는데 (*아래 외부와 내부 사진) 방문자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담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경건한 분위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영락수련원 031)743-6537
- 남한산성 우거처 031)747-0493

남한산성 우거처 팔복재



팔복재와 우거처에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봉사관, 행정처 등에서 20년 째 근무하다가 올해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 우거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거처(寓居處)는 ‘남의 집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재산, 부동산 하나 없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후 25년 가까이 남한산성 우거처에서 지내셨습니다. 우거처에는 목사님의 살아생전 가재도 구며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생전 모습을 어렵잖이나마 느끼게 합니다.

지난 1월, 기대 반, 설렘 반, 우거처에 도착하니 그곳은 함박눈이 가득 쌓여 설산이 되어 있었습

니다. 정문에 새겨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눈이 살포시 내려 앉아 두꺼운 활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1990년대 초 청년부 방송 선교부 활동을 할 때 목사님을 뵈러 남한산성에 와서 미주 복음방송 개국 축하 메시지를 녹음기에 담고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0여 년 후 이렇게 우거처에 온 것이 낯설지 만은 않습니다.

이곳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으로 세계 유산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온산에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있고, 고라니 청설모 너구리 고양이 등이 뛰어다니며 까마귀 까치 뼈꾸기 파랑새 딱따구리 꿩 등이 보이는 자연 경관입니다.

겨울에는 사방 은세계를 경험하고 언덕바지 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 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84:10~12)

설작업을 하며, 봄철에는 각종 꽃잎과 소나무 송진가루의 청소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장마와 태풍을 보내고, 각 관리건물의 제습과 곰팡이 관리에 분주합니다. 장마 후 말벌 집 제거와 거미줄 제거, 인근 국청사 옛터 문화재 발굴지의 경계선 울타리 순찰 및 관리 등의 일을 합니다. 낮에는 안내실을 지키며 방문객을 맞고 각 건물과 수목의 상태, 대문 옆 울타리 등을 점검하고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고 제초작업과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물탱크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을 관리합니다. 매일 한 일과 익일 할 일 주간 업무계획과 방문객들을 기록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폐쇄 지침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방문자의 경우 예약을 하고 오는 단체손님들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입구에 세워진 안내현판과 말씀이 새겨진 대문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내를 둘러보고 우거처의 안내와 팔복재에 전시된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기대이상의 보람이 있었음에 감사를 표하곤 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매 순간 정답고 아쉬운 작별입니다.

한목사님은 믿음과 청빈과 겸손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의 모본을 보이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민족복음화의 소망과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교계와 학계 사회사업과 세계 최대 NGO인 월드비전의 설립과 성장의 중요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분은 종교노벨상인 템

풀턴상을 수상하신 교육가요, 전도자요, 봉사자요, 애국자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일대기와 은퇴 이후의 삶과 사역을 우거처와 팔복재 그리고 기도처를 통해 보고 듣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도 기도의 장소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거처로 근무지가 결정될 때 인간적인 염려로 마음의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차차 적응해 나가며 에벤에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늦여름 매미들의 힘찬 교향곡과 풀벌레 소리, 새들의 합창소리와 동녘의 환한 먼동과 함께 저의 삶은 시작됩니다. 우거처 앞에 철제 십자가의 밝은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수시로 느끼게 합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고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성실과 정직으로 교회의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안녕**



이광소 목사
성동·광진교구
남한산성우거처 담당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추석 명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18:29)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1월 20일 이래 지금 우리의 생활은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번갈아 드리면서 에클레시아 신앙 공동체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2020년을 자신들의 생애에서 지우고 싶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해야 할 때, 올여름 유례가 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980년 여름으로 기억된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물은 제방 둑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밀려들어 온 토사가 우리 논을 향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해 농사를 망쳤다. 그 이듬해 종자로 사용할 벼 한 톤 건지지 못했다. 이듬해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나는 등록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친척이 빌려준 돈으로 입학금을 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불확실 시대를 사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인들은 즐거운 추석, 감사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추석 명절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석의 유래

추석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의 제3대 왕 유리 이사금 때 벌인 적마경기(績麻競技)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왕이 6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이 각각 부(部)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가을 음력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大部)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도록 해 오후 10시경에 그치는데, 음력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적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사례하게 했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모두 행하는데 그것을 가배(嘉俳)라 했다. 이 말이 변해서 ‘가위’가 됐고, 크다는 뜻의 ‘한’과 어우러져 ‘한가위’가 됐다.

추석 명절과 유사한 맥추절: 추수감사절의 시원

출애굽기 23장 14~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세 번의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오순절), 수장절(초막절)이다. 맥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보리 수확기의 명절이라는

뜻으로, 추수감사절의 시원이 되는 명절이다. 보리를 추수하고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린 지 일곱 번째 안식일 후, 즉 오십 번째 날에 지켜졌기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린다(신약에서는 오순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맥추절엔 햇곡식으로 만든 떡을 포함해 여러 제사를 드렸다. 또한 신명기 16장 14절에 의하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다. 1621년에 청교도들이 곡식을 재배·추수하고 은혜를 베푼 인디언을 초대해 3일간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됐다. 추수감사절은 추석과 비슷한 의미가 있으나, 시기상의 차이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년에 두 번 감사절을 지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의 추석과 2020년 추석에 바람

처음 수확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조상에게 감사하던 추석의 모습, 전통 놀이문화(소싸움·길쌈·강강술래·달맞이·줄다리기·씨름·닭싸움)가 사라진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평소에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 형제자매, 일가친척을 찾아뵙기 위해 귀성/귀경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역귀성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많은 국민이 추석 황금연휴를 맞이해 해외 가족 여행도 떠난다.

하지만 올 추석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이동도 최소화 하라는 것이 방역 정책이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 시름이 깊은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 지역 간 이동을 못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음식 준비로 인한 며느리들의 심한 가사노동, 정치 논쟁, 자녀들의 취업, 결혼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코로나 방역 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실내 환기, 거리 두기)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그래서 믿지 않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주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한가득 안고 새 삶을 시작하는 2020년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해피 추석!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1994~1995년 아부다비지사 때 선물받은 성경 말씀.



김창섭 집사
인천교구
감사위원회 위원

9월의 기도

무자비한 코로나
휩쓸고 간 자리
꿈을 잃은 사람들
산봉우리 끌어 눕힌 가슴마다
해님 향해 눈 맞추는
해바라기 닮게 하소서

창조 질서 거스르고 대적하며
가치관이 혼돈된 불신의 시대
서로를 증오하며 높이 쌓는 이념의 벽
깊고 맑은 9월의 하늘 바라보며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함과 평화로 우리 안을 채우소서

거짓이 판치는 어둠 속 길을 잊고 해맬 때
기도를 들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의인의 굽은 길을 펴주시는 당신
애통한 가슴마다
해가 내려와 사는 꽃밭
알알이 들어찬 희망 옹골차게 익어 가게 하소서



조은미 권사
온누리교회
시인





거기 너 있었는가

이 곡은 흑인영가(Afro-American Spiritual)이다.

원제목은 'Were you there?'에서 'there'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던 제자들은 그 현장을 피해 모두 숨어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모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거기 너 있었는가 147

(월 136) Afro-American Spiritual
예수를 찾기 위해 간절히 묵시보내니 떠나온 많은 이들이 거기 있었어
(화 27.55) WERE YOU THERE: IRREG.
Afro-American Spiritual

조금 빠르게 100

1. 거 기 너 있 었 는 가 그 때 에 주 주 주
2. 거 기 너 있 었 는 가 그 때 에 주 주 주
3. 거 기 너 있 었 는 가 그 때 에 주 주 주
4. 거 기 너 있 었 는 가 그 때 에 주 주 주
5. 거 기 너 있 었 는 가 그 때 에 주 주 주

그 십 자 가 에 달 릴 때
그 나 무 위 에 탈 릴 때
그 밤 놀 빛 을 일 릴 때
그 무 끔 족 을 뒤 릴 때
그 무 립 에 서 나 올 때

오

(1~4) 때 로 그 일 로 나 는 멀 려 멀 려 멀 려
(5) 때 로 그 일 로 주 계 영 광 영 광 영 광

거 기 너 있 었 는 가 그 때 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물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못박힌 현장에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을 노래한다. 이 절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볼 때를 생각하며 노래 불러야 한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글씨를 남기셨다. 봉사관 2층에 가면 볼 수 있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중 죄인을 부르시는 소리 “네가 어디 있느냐”의 말씀이다.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혹여 죄를 범하는 자리는 아닌지 생각해야 하고,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만남』 7월호에 썼듯 흑인영가는 입으로 전해진 노래이기 때문에 작사자나 작곡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언제부터 이 곡조가 불리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20세기 초 찬송가 형태로 편

곡된 이 노래는 〈미국흑인민요집〉(Folksongs of the American Negro, 1915)에 처음 실렸으며, 미국 찬송가에 1940년에 채택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새 찬송가(1962) 643장에 소개되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흑인영가는 아프리카의 음악과 미국에서의 억압과 갈망이 만들어낸 독특한 미국계 아프리카 종교 음악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 흑인영가는 노동하며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박자(working rhythm)에 맞춘 교창형식(antiphon, 응답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흑인영가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4성부의 합창이 아니라 제창(unison)이었다는 사실이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 4부 합창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의 장식이나 음정을 미끄러트리며 음을 올리거나 내리는 기법 등은 사용되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예수의 고통과 비유하며 이러한 고통은 하늘나라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심 걱정은 아무도 모르네(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딥 리버(Deep river)’ 같은 음악에서 큰 특징으로 표출된다.

넷째, 흑인영가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인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것과 그것을 도와주는 것으로도 노래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흑인영가 ‘스틸 어웨이(Steal away)’는 주님께 한 걸음씩 살금살금 가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Steal away’, 살금살금 도망을 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가사 ‘My Lord, He calls me. He calls me by the thunder(주님, 나를 부르시네, 천둥 속에서 나를 부르시네)’에서 ‘천둥소리’는 도망치기 좋은 여건을 암시해 주며 계속되는 가사 ‘the trumpet sound’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물론 다음 가사 ‘within my soul’ 즉 아직은 ‘내 영혼 속의 함성’이다. 이런 노래들은 그 의미를 감추고 흑인사회에서만 알려지고 숨겨져 왔다.

다섯째, 숨겨진 언어는 탈출 외에 싸움의 언어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듯 노예제도의 장벽도 싸움을 통해 언젠가 무너지리라는 기대를 늘 갖고 있었다.

여섯째, 흑인영가는 솔로가 많다. 이것은 교창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합창은 주로 단순한 멜로디의 반복이었다.

일곱째, 흑인영가에는 싱코페이션(당김음), 봇점 리듬과 악센트 등 태생적으로 그들만이 지닌 리듬이 있다. 이 리듬이 주는 효과는 지금까지도 많은 성가에서 흑인영가가 빠지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여덟째, 5음 음계(도·레·미·솔·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아홉째, 흑인영가는 정확한 기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부르는 음들, 그리고 신기할 정도의 끌어올리고 내리는 창법과 리듬 등을 악보로 그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열째,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의 노래는 틀리게 쓰는 가사와 발음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흑인영가 ‘쿰바야(Kumbaya)’는 ‘여기 오소서(Come by here)’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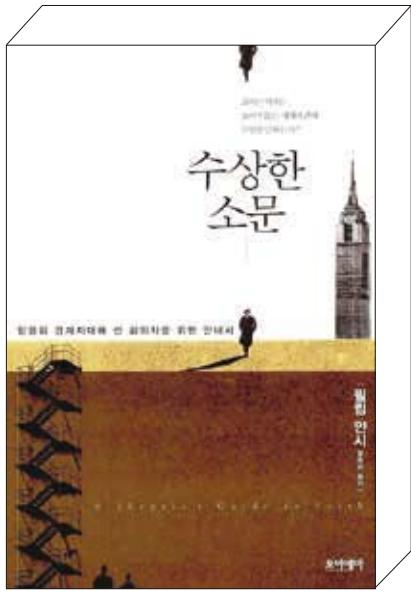


흑인영가는 노예들의 해방과 함께 탄생한 블루스, 래그타임, 재즈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별히 가스펠과 결부되어 새로운 노래의 장르인 블랙 가스펠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흑인영가에 피아노와 드럼, 탬버린, 전자 기타 등의 악기가 사용되고 솔로와 후렴이 많다. 특히 당김음 등 리듬이 다양하고 흑인들만의 창법과 즉흥연주를 하는 등 흥미를 유발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가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있다. 한글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수상한 소문



필립 앤시 지음 / 흥종락 옮김 / 포이에마 / 400쪽

평범한 자연계에는 초자연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곧바로 헤아릴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일식을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멀고 말 것이므로 태양빛이 비춰는 뭔가를 통해서 봐야 한다.

- 『수상한 소문』 중에서

필립 앤시는 믿음의 회색 지대 혹은 경계 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온 작가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이 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논리를 은연중에 강요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하는데, 교회 안의 설명과 논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길 안내를 꾸준히 해 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 간 흔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문’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름다움, 고통과 욕망, 죄와 죄책감 같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을 ‘소문’ 곧 희미한 소리에서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냅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2부 - 혼란의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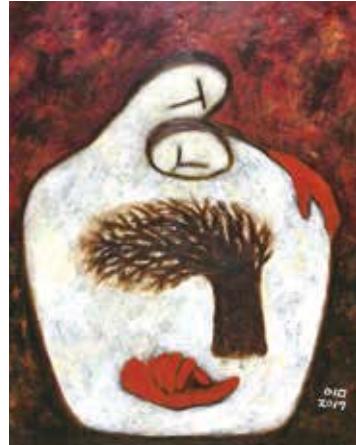
3부 - 두 세계

저자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신학적 문제를 공감 있게 써내려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이 ‘확신과 기쁨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만남



황광용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예배위원회, 권사회

동행



3년 전 봄, 여름 한철 내내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추스르기 힘들어지니 처음으로 ‘늙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순을 넘기는 시기이긴 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스스로에게 늙음을 허락하지 않는 나에게 주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늙는 것도 괜찮다” 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지며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고 이튿날 바로 붓을 들어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 가운데 바람에 나뭇잎 다 떨어진 채 온몸이 휘어진 나무는 그때의 황량한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곁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행복을 맛보니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다른 차원의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날**

교회 소식

news letter

“이때를 위함이라” 본당서 열린 도심 속 산상기도회



제60회 산상기도회가 지난 7월 29일(수)부터 8월 7일(금)까지 본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영락기도원이 아닌 본당으로 장소가 바뀌었으며, 1,2차로 나눠 각각 3일간 저녁기도회-(수목금)와 새벽기도회(목금)가 진행되었다. 본당기도회(약1,730명 참석)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생중계(유튜브접속 약 6,710회 /IT미디어부 집계)로 동시 진행된 이번 산상기도회에는 영락의 젊은 세대들도 다수 참석, ‘생활속 거리 두기’를 지키며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다.

7월 29일(수) ~ 31일(금) 열린 1차 산상기도회를 이끈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원로)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용서, 섬김, 화해의 복음으로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 “바로 이 때에 영락교회가 나서 재능과 은사와 돈과 지식을 세상을 향해 과감히 던져 그들을 감동시키자”고 축원했다.

2차 산상기도회는 8월 5일(수)부터 7일(금) 3일간 진행되었고 유진소 목사(호산나교회)가 영성의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자신이 힘들고 외롭던 젊은 시절, 영락교회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시기에 영락교회가 앞장섰던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헤렘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 때의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시대의 진정한 ‘에스더’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예년처럼 기도원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도심 속 영락의 성소에서 드린 산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곁에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참석한 영락의 많은 교우는 “이 어려운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때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귀한 영적 승리의 시간을 체험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원종석 기자

우리 교회, 예장 총회에 수해 및 코로나19 피해구호금 전달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26일(수) 선교부(부장 김순미 장로)를 통해 수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단 산하 교회들과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구호금 1억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구호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은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교단 내 교회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총회 사회봉사부에 기탁됐으며, 그 중 일부는 영락교회가 후원하는 노회 소속 교회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정 기탁했다. 또한 나머지 5천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후원이 중단된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긴급 생활비 지원금으로 총회 세계선교부에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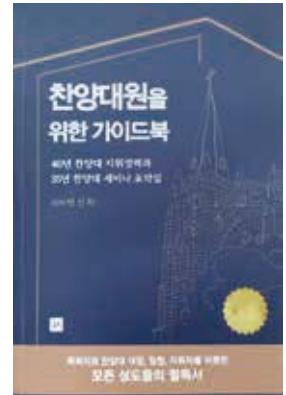
기증식에 참석한 김운성 목사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정성이 수해 피해를 당한 교회와 지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였던 지난 2월 우한 철수 주민을 수용해준 충남 아산 시민들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충주·충남·진주노회 소속 자립대상교회와 상가교회에 총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공 선교부 사진 한국기독공보

신간 안내 ‘찬양대원을 위한 가이드북’

우리 교회 갈보리찬양대 지휘자이자 국내를 대표하는 합창 지휘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진 박신화 장로(이화여대 음대 교수)가 『찬양대원들을 위한 가이드북』(중앙아트 발행, 264면)을 냈다.

우리 교회 등에서 40년간 찬양대를 지휘하고 35년간 찬양대 세미나를 이끌어 온 필자의 노하우가 한데 담긴 이 책은 찬양대의 기본적 역할을 비롯해 구약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찬양대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회음악과 흑인 영가, 예배와 찬양대 운영, 찬송가에 관한 부분, 찬양을 위한 실습과 음악 상식 등 음악 적 지식과 찬양대원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 소양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는 필자가 추천하는 찬양곡들을 게재했다.



필자 박신화 장로는 현재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도 활동 중에 있으며 〈만남〉에 ‘성가산책’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선교는 멈춰선 안돼” 교회 홈페이지에 e-선교 개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곳에서 대면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인 선교는 멈출 수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선교부에서는 매주 선교말씀과 해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성도님들께 보다 빠르게 전달,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e-선교를 개설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 되는 선교만나와 선교기도게시판의 선교기도제목을 보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영락교회 홈페이지 [선교/봉사]란에 e-선교를 개설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소(<http://e-village.youngnak.net/e-mission/>) 혹은 QR코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공 선교부

영락중학교 교장 이·취임 예배



지난 8월 25일(화) 영락중학교 한경직관 대강당에서 영락중학교 제13대 조용철 교장의 정년퇴임과 제14대 이석주 교장 취임 예배가 영락학원 이사장 김운성 목사와 학교법인 이사들,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며 거행됐다.

홍만우 목사(교목)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영철 장로(부이사장)의 기도, 본교 교사의 찬양에 이어 김운성 목사는 ‘길갈의 열두 돌(여호수아 4:19-24)’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조용철 교장은 이임사에서 “영락중학교에서의 교직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했다. 이석주 신임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교육현장 속에서 영락중학교가 나아가야 할 스마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공 영락중학교

9·10 월 목회력

9월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온라인)
13일(주일)	제직회
10월 9일(금)	문화선교 축제
11일(주일)	선교주일/학원선교대회, 제직회
14일(수)~16일(금)	선교부흥회
16일(금)	연합권찰공부
18일(주일)	다음 세대 기도회
25일(주일)	종교개혁기념주일, 아동부찬양제 리틀스타, 사회봉사주일
30일(금)	심방준비회

※ 9·10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치근 은퇴장로 별세

정치근 은퇴장로가 지난 9월 9일(수)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1922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한 뒤 제주대·서울고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9년 한 국찬송가공회의 찬송가공모서 4곡(48장, 57장, 473장, 576장)의 가사가 당선되는 등 작가와 시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고인은 한국 사회공헌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86년 집사 안수를 받은 후 1991년 본교 제23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고인은 평신도부(대학3부) 부장, 교사양성부 부감, 홍보출판부 차장, 영락교회유지재단 이사, 영락기도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9월 11일(금) 오전 8시 30분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진 뒤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박재현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유족은 부인 최도희 은퇴권사, 강남 정천우 장로를 비롯해 2남 1녀를 두었다.



2021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항존직 선거] ④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2021년 장로 20명과 안수집사 2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바랍니다.

■ 선거기간

선거공고일~투표일까지(2020년 9월 20일~2020년 11월 29일)

■ 선거일정

후보추천

장로·안수집사 후보는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시무장로와 교구목사의 추천(복수)을 받아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접수한다.

○ 접수 일정: 9월 27일(주일) ~ 10월 11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접수 방법 : 선거실무팀 메일(ynvote@youngnak.net)을 통한 온라인(On-line)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후보추천 필수서류(항존직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 후보 개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이상 발급 3개월 이내)

후보자 서약서(부부공동),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후보 개인 사진: 여권용 칼라사진(흰색 바탕, 6개월 이내 촬영사진) 2매 및 원본 파일 제출

- 후보 직업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후보의 선정

1. 장로·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을 하여
선출인원(장로 20인, 안수집사 20인)의 1.5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후보자는 추첨(제비뽑기)으로 기호를 정하여 1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2배수로, 1차 투표 결과 다득표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공천후보자 기도회

11월 8일(주일) 저녁 6시 20분, 50주년기념관 503호

투표

후보를 확정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 투개표 진행

- 1차 투표(후보대상) : 11월 22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2차 투표(1.2 배수) : 11월 29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투표권자** : 본 교회 교인으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만18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사람 (투표일 기준)
- **투표절차** : 투표권이 있는 교인이 투표 장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 **투표장소** : 봉사관 1층 및 지하 1층

■ 총회헌법상 항존직의 자격 및 선택 기준

	자격	선택
장로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small>(총회헌법 2편 제40조)</small>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small>(총회헌법 2편 제41조)</small>
안수집사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small>(총회헌법 2편 제51조)</small>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small>(총회헌법 2편 제54조)</small>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 고지된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영락교회 선거집행위원회 위원장 정 천 우 장로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릴 때 '겸손' '청빈' '사랑' '희생' '봉사' 등의 단어들이 망설임 없이 튀어 나오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보다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8.15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지내오시며 평생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목사님이 행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았다. 한경직 목사 추모 20주년을 맞이하며 올해로 제4회를 맞는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에서는 목사님이 삶을 통해 뿌리신 좋은 씨앗을 열매로 이어받은 기관이나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만나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좋은 씨앗을 널리 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번 북적북적 독서행사 기간이 선정도서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돋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후에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에서도 거두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진정 어떤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2020
북적북적
독서공모전

참가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청·장년)

응모부문

상세내용		제출방식
수필	내 가의 삶의 한 경적 목사님	A4 1~20쪽 이내
독서감상문	선생도서 가운데 책1	
회화, 풀문, 번역	내 가의 삶의 한 경적 목사님 또는 선생도서 읽고 표현	자유 형식

선정도서

대상	시작사항
중·고등부	『사랑 너를 창한 하나님의 박회처』 희운석, 생명의 말씀사, 2018
중·고등부	『나의 감사』 한경직, 두란노, 2010
일반부	『오래된 소원』 박학진, 흥성사, 2015
일반부	『보람의 사랑은 강물처럼』 박소연, 늘푸른, 1990
일반부	『구령난 복음』 리처드 스텐스, 흥성사, 2010

응모방법

전자우편(dibmi@naver.com) 또는 직접제출(도서관 3층 데스크)

- 접수 시, 파일명은 '성명_제목'으로 제출, 작품 표지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 문의 : 02-2280-0293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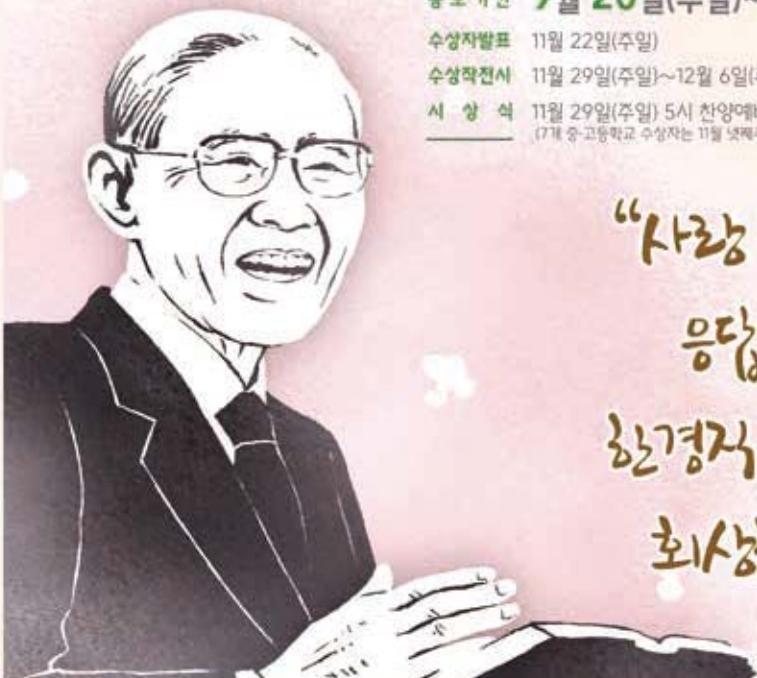
구분	인원	상금 및 상품	
		중·고등부	일반부
최우수상	1명	글학시 베즈 플러스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상	2명	문화상품권 5만원	문화상품권 10만원
첨라상	3명	문화상품권 3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없음

응모 기간 9월 20일(주일)~10월 25일(주일)

수상자발표 11월 22일(주일)

수상작전시 11월 29일(주일)~12월 6일(주일)

시상식 11월 29일(주일) 5시 찬양예배, 영락교회 본당
(17개 중·고등학교 수상자는 11월 낮에 해당 학교에서 시상)



“사랑 실천으로
응답해라
한경직 목사님을
회상하며”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편집장 레터

어느덧 무덥던 여름은 뒤로한 채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들녘에서는 하늘하늘 코스모스들이 반갑게 손짓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연의 쉼 없는 생성과 변화를 통해서 '소통(疏通)'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단한 3단논법 한 가지를 살펴보죠.

대전제 만약 모든 사람이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소전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주셨다.

결 론 오직 나만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위의 전제들과 결론을 살펴보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제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럴듯한 논리적 인식은 하고 있으나 거짓 결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서로 간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자기가 가꾼 꽃이 여느 장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미

는 자기가 직접 아주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맹신과 소문, 문화적 이질감, 상호불신, 이데올로기적 노출 등은 대립과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스스로가 필연성의 주체가 되고자하기 때문입니다. 필연성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꼭 해야 할 것만을 하시는 당위적 존재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의무(義務)'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목상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 간의 소통은 원활해집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논리는 의외로 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9, 10월『만남』은 합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합본『만남』을 통해 '소통의 단서' 가 제대로 보여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0년 9·10월호 통권 560호

발 행 2020. 10.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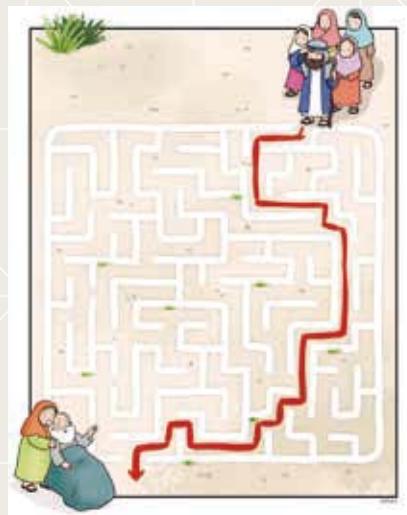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미로찾기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다른 그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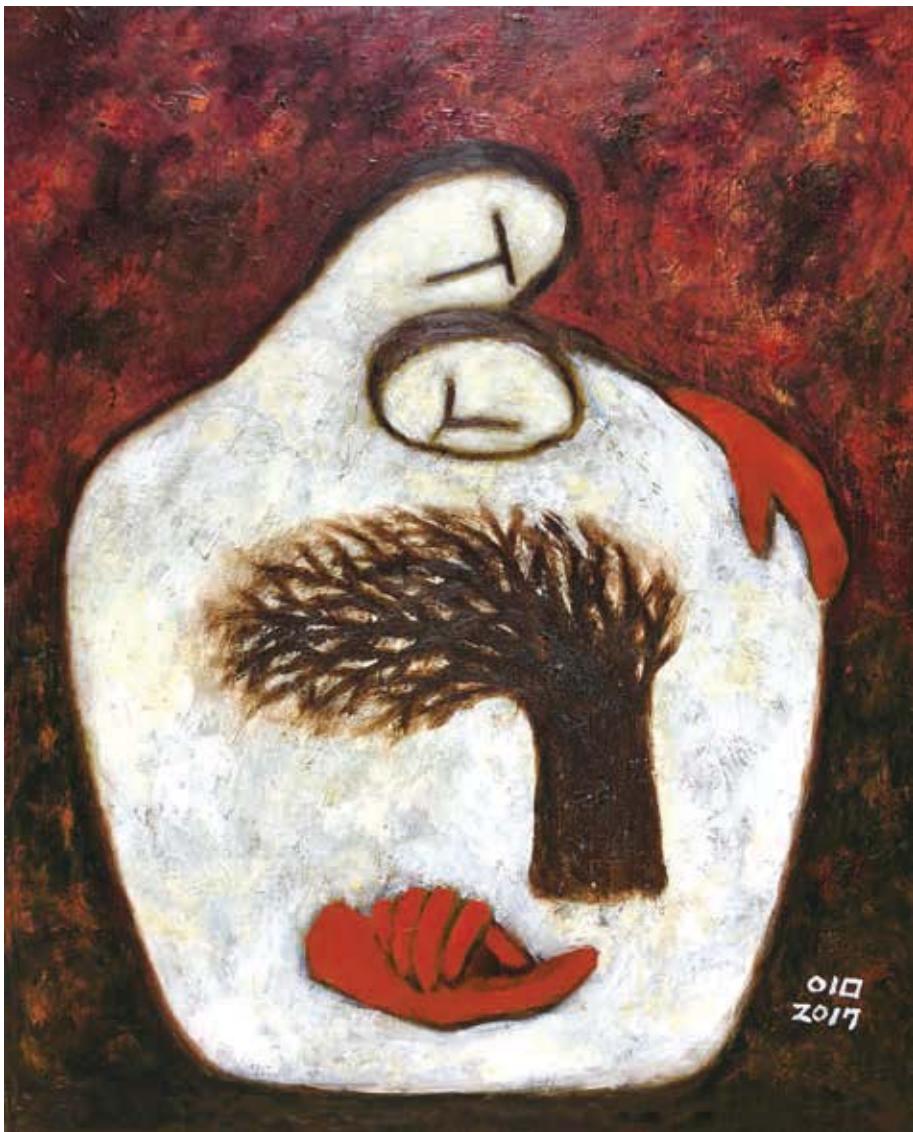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2:13~22)
위, 아래 그림에는 7개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세요~



영락화랑

동행



임규열, Oil on Canvas, 65.1×53cm, 2017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곁 사람은 넓아지나
우리의 속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16)